

제416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7월8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 선임의 건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국가유산청
 - 다. 한국정책방송원
 - 라. 세종학당재단
 -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아. 영화진흥위원회
 -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 카. 국제방송교류재단
 - 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파. 한국문학번역원
 - 하. 한국관광공사
 - 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너. 대한체육회
 - 더. 대한장애인체육회
 - 러. 언론중재위원회

상정된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5
 - o 간사(박정하) 인사5
2. 소위원회 구성의 건6
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6
 - 가. 문화체육관광부
 - 나. 국가유산청

다. 한국정책방송원
라. 세종학당재단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아. 영화진흥위원회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카. 국제방송교류재단
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파. 한국문학번역원
하. 한국관광공사
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너. 대한체육회
더. 대한장애인체육회
러. 언론중재위원회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신 첫 회의입니다.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박정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안녕하십니까? 원주갑 출신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평소 진짜로 존경하는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같이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요즘 자꾸 무너져 가는 신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관련한 민생을 잘 보듬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협조 그다음에 가르침 많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인사?

○위원장 전재수 예전에 다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를 출신 김승수입니다.

저는 21대 4년 동안 문체위에서 활동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문체위에 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 박정하 간사 말씀이 계셨듯이 존경하는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처음 뵙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21대 때 다른 상임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문체위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운영됐던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아특별 관련해 가지고 안전조정위를 무력화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지금 대립이 굉장히 격화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문체위에서는 정말 국민과 또 우리 예술인들 또 체육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송파의 배현진입니다.

이곳 문체위에, 일단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4년간 저희 문체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오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저희 문체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지난 4년간 가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만나셨던 위원님들도 여기 있으신데 굉장히 격돌하고 하는 와중에 일종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나름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예술인들 정말, 특히 영세한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문화 증진 그다음에 국가 체육계의 선양을 위해서 여야가 나름은 최대한 다투지 않고 많은 협의말씀들을 나눠 가면서 특히 역사적으로도 많은 결과를 이뤄 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물론 저희가 지금까지도 다투고 있는 문제지만 세계 유네스코에다가 편지도 보내고 하면서 군함도와 그리고 사도 광산 문제를 같이 문체위에서 협업해서 논의를 했고 국회 결의안 대표발의도 제 이름으로도 하고 많이 했고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홍사단도 제가 이곳에서 4년 동안 활동을 하면서 지켜 낼 수 있었고 그리고 일제식의 문화재, 문화재청이라는 그 틀을 벗어나서 세계 유네스코 기준에 맞는 국가유산청으로의, 국가유산 시대로의 발돋움을 지난 4년간 저희 문체위에서 또 이뤄 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또 함께 문체위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위원님들 지역에서 활동하시며 더 지혜로운 아이디어 많이 있으신 걸로 아는데 국가의 역사를 위해서 그리고 문화를 위해서, 체육을 위해서 많은 결과 같이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께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먼저 존경하는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같이 뵙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많은 우리 야당 위원님들도 제가 언론인으로 있으면서 이런저런 인연으로 많이 뵈었던 분들인데 바라건대 그때 일은 그때 일로 잊으시고 이제 같은 상임위에서 좀 사이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국회 등원이라 나름대로 꼭 좀 제 소신을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잠시 제가 준비해 온 걸 잠깐 좀 하겠습니다.

1964년에 비틀즈가 미국 존에프케네디공항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미국 팬들이 운집해서

환호했습니다. 이른바 브리티시 록의 시대가 미국에서 열렸고 미국 언론은 이 사건을 ‘비틀즈의 미국 공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반세기가 지난 2017년 대한민국의 BTS가, 한국의 BTS가 미국에 처음 진출했을 때 미국 언론들이 ‘그때와 유사한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들면서 정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동방의 조용한 나라 한국 문화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인 시절에 이런 위대한 성과에 대해서 늘 보도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혹시 그들의 이 대담한 도전의 발목에 모래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과 성찰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22대 국회 우리 문체관광위만큼은 목소리 큰 어른들의 전쟁터가 아니라 전 세계 문화전쟁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미래세대들의 병참기지, 그들을 위해서 좋은 법을 만들어 주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병참기지가 되기를 정말로 정말로 희망합니다.

당연히 정치라는 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재원을 이념과 철학에 따라서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나누는 싸움, 전쟁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제가 먼저 우리 야당 위원님들이 좋은 법안 만들 때 저도 같이 동참하고 또 좋은 토론회 하시면 저도 동참하고 그렇게 꼭 실천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위만큼은 국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정치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받는 그런 좋은 상임위가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저부터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의 정연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을 비롯해서 야당 위원님들과 함께 앞으로 문체위에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저도 언론인으로서 주로 정치부 경력을 쌓아 왔지만 문화부에서 1년 정도 문화부 기자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게 이력이라고 자랑할 수는 없겠지만 그때 제가 처음 경험했던, 세계 굴지의 문화산업 현장을 한번 둘러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한 두세 달 정도. 그때 당시에 겪었던 경험들이 저로서는 상당히 충격이었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불과 몇 년 사이에, 미국에서 보지 못했던, 저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현장들이 바로 그다음에 밀물처럼 우리 문화현장으로 밀려들어 왔던 걸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가 한 발짝 늦출수록, 뭔가 고민하다가 늦어질수록 더욱더 우리는 지체될 수밖에 없는 문화현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최소한도 여러,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여야가 여러 차원에서 다투고 의견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적어도 이 공간에서만은 뭔가 쌓아 나갈 수 있는, 국민들에게 최소한도 이런 부분은 국회가 할 수 있다,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생산적인 공간으로도 좀 자리 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밑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장 및 간사 간 합의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교섭단체 간 균등하게 교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회의마다 위원님 질의 순서를 한 분씩 앞으로 당기고 맨 앞에 질의하신 위원님은 다음 회의에 간사 위원님 앞 마지막 순서로 하면서 간사 위원님 두 분은 마지막으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차례에 해당되는 위원님께서 재석하지 아니할 때는 당일 질의 순서의 마지막 차례로 이동하는 원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들과 협의한 결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3분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회의 당일의 상황에 따라서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융통성 있게 질의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11시13분)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교섭단체를 대표해서 위원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할 간사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국회법 제50조에 따르면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위원회에서 간사로 선임해 왔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추천해 주신 박정하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정하 위원님이 우리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간사(박정하) 인사

(11시14분)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박정하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영광스럽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재수 위원장님 잘 모시고 그다음에 임오경 간사님 존중하면서 제가 심부름하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과정 거쳐서 다시 오신 박수현 선배 위원님, 방송국에서 짝지었는데 이제 국회에서 같이 일하게 된 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양문석 위원님도 맨날 방송국에서 뵈다가 이제 국회에서 뵈게 되었으니 많이 가르쳐 주시고 협의하면서 정말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우리 문화체육관광위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거듭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2.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5분)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회법 제57조 및 제125조에 근거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및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간 협의를 거쳐서 각 소위원회의 전체 위원 정수, 위원장 및 교섭단체별 인원 배분 등에 대해서 합의를 하였고 그에 따라 각 교섭단체별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서 마련한 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체부제1차관 소관 및 국가유산청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할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박정하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총 9인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체부제2차관 소관 법률 심사를 담당할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간사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총 7인으로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총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신동욱 위원께서 소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는 총 5인으로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에 대해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소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상정하기 전에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정회했다가 8분 후 11시 2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문화체육관광부

나. 국가유산청

다. 한국정책방송원

라. 세종학당재단

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 한국콘텐츠진흥원

- 아. 영화진흥위원회
- 자. 영상물등급위원회
- 차. 한국언론진흥재단
- 카. 국제방송교류재단
- 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 파. 한국문학번역원
- 하. 한국관광공사
- 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너. 대한체육회
- 더. 대한장애인체육회
- 러.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전재수 의사일정 제3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

우리 첫 업무보고 회의가 시작이 됐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저희가 늦게 들어온 과정 중에 아마 기관증인 채택이 돼서 오늘 업무보고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첫 회의를 우리가 완전 바쁜, 빨리 업무보고를 받고 민생 현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며 앞서 있었던 몇몇 상임위를 보니까 운영위, 법사위 다 채택됐던 증인들에 대한 선서 없이 그냥 진행이 되고 또 회의가 원만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된 기관증인은 나와 있습니다라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증인 선서 없이 그냥 업무보고를 진행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제가 선임되기 전에 간사단 회의에서 약간 그런 내용들이 합의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님하고 민주당에서 양해해 주시면 증인 선서 없이 업무보고를 우선 빨리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증인 선서 철회에 앞서서 한 말씀 반드시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한 달여가 지난 지금에서야 정상적인 상임위가 열린 것 같아서 야당 간사로서 깊은 유감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던 것 같고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은 쏟아지면서 대통령의 탄핵 청원이 현재 12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제대로 국민을 챙기지 못하면 여기에 앉아 있는 정부위원들이라도 더 경각심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위원장님,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임위는 지난 6월 18일과 24일 두 차례에 걸쳐서 회의가 열렸지만 여기 계신 여당 위원님들 그리고 문체부 그 누구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6월 24일 유인촌 장관은 헌법에 명시된 정부위원의 의무를 무시하고, 장관의 해외 출장 시각까지 고려하여 회의 시간을 잡았음에도 불출석사유서 제출도 없이 출장을 떠났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대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부위원들까지 거기에 휩쓸려서 국회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것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정쟁에 놀아나 용산 눈치, 여당 눈치만 보며 국회에 비협조한다면 현장의 문화예술체육인들의 어려움은 누가 헤아려 줄 수 있겠습니까? 문체부는 대통령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부처, 국민의 어려움을 헤아려 줄 줄 아는 부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야가 대립할 때마다 안전 심의를 상정하고 정부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만 상임위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중하게 꾸짖어 주시고 장관의 상임위 무단 불출석에 대해 명백한 사과 및 유사 상황 재발 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 요청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야당 의원실별로 불성실하게 제출되거나 제출하지 않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 오후 속개 시간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박정하 간사님의 증인 철회 발언에 동의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전에 임오경 간사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다짐과 약속을 받고 해야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자료제출과 관련한 정부 측의 태도를 보면 정말 우리가 국회가 맞는가, 국회를 존중하는가라는 그런 어떤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료제출은 정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야당의 어떤 질문이나 의혹 제기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정부 측 입장을 밝히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자료제출과 관련해서 그렇게 소극적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6월 18일 제가 이 문체위 상임위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6월 20일에 문체부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의원실에 방문하여 열람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기다렸는데 7월 3일까지 전화, 방문 일정 조율 등 일체의, 의원실에 연락과 협의 과정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7월 3일 날 무성의한 열람 회답에 대한 질타를 포함한 자료 요구를 다시 했더니 7월 4일 날 담당 사무관이 와서 왜 제출할 수 없는지에 대한 소명을 했지만 보름이 다 가도록 무대응한 것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입장도 이해를 해 봅니다만 앞으로 의원의, 특히 국회에서의 자료 요구에 대해서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태도를 가지고 국회를 존중하면서 또 정부에 대한 국회의 질문에 국민들께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어떤 책임감과 의무감의 차원에서 이 자료제출 요구를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 주시기를 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지금 박수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문체부가 자료를 처음 시

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불성실함을 넘어서 국회를 무시하는 그런 태도를 계속 보여서요.

우선 두 가지 자료 요청드리고 그리고 두 가지 서면질의를 드릴 테니까 꼭 거기에 답을 좀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용호성 차관의 징계 기록을 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이게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 용호성 차관의 블랙리스트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문체부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 자료를 좀 달라 했는데 역시 안 줍니다.

위원장님, 촉구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질의를 제가 두 가지 할 텐데요.

하나는 아시는 것처럼 연합뉴스 예산의 정부 지원금이 82.1%가 줄었습니다. 그러자 연합뉴스 운영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기면서 그게 그대로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보도 내용에서도 공적 기능이 현저하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는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주권자인 시민들의 알권리가 침해받게 됩니다. 개선 방안 서면으로 마련해서 제출해 줄 수 있도록 제가 서면질의서를 넣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체부에서 체육회에 보조금을 직교부하는 게 있는데, 이것 여전히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문체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를 비롯해서 그 세부내역들하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의 2025년 문체부 보조금 집행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개편 사유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10년간 민간보조사업 예산이 지자체보조사업으로 개편이 됐는데 이 내용들을 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서면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위원님들 자료제출 요구가 있었고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오후 회의가 다시 속개가 되면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자료를 좀 신속하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 자료제출은 지금 아마 오전에도 제출된 게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서면으로 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저희들이 다시 제출해 드리겠고요.

커다란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잘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도……

○강유정 위원 제가……

○위원장 전재수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 요청을 좀 할까 하는데요.

지난번 저, 이기헌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에 대한…… 업무보고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것에 대한 정확한 사유를 아직 제가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한 것 좀 받아 보고 싶고요.

그리고 20일, 21일에 요청했던 야당 보좌진 업무보고 역시 안 받아들여졌지요.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겨우 업무보고 일정을 잡았는데 전날 밤 10시에야 업무보고 자료를 보내 주셨습니다. 이것은 보좌진들이 미리 자료를 훑어볼 시간을 뺏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좀 주의를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 이후 상암월드컵 경기장 잔디 보수 내역 그리고 유인촌 장관 현장 간담회 관련 자료 요청,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오후까지 이 자료가 좀 제출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좀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불성실한 모습으로 자료제출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들어 낸 것에 대해서 주의를 좀 주실 걸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국민의힘 박정하 간사님께서 증인 선서 철회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2대 국회에서 소관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하여 유인촌 문체부장관과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에게 6월 24일 전체회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6월 24일 전체회의에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불출석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이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2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1조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이 각각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시고 나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촌 문체부장관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먼저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도 저희가 보답을 못 해 드린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 상임위나 국회의 일정에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작년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회 일정을 우선 존중하고, 다른 행사나 기타 여러 가지 일이 있어도 대부분 그 일정을 조정해서 국회에 빠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어쨌든 그런 일로 인해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저도 굉장히 아쉬운 마음이고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폭넓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상임위 출석이나 기타 국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간 저희들이 잘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최응천 국가유산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앞서 전체회의에 불참석한 것에 대한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 적극 협조하면서 모든 일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참석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문체부장관 및 국가유산청장은 문체위원회 회의에 무단으로 불출석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받지 않은 불출석으로 인해서 6월 24일 전체회의 시 7월 8일 오늘 업무보고 및 현

안절의를 실시하기로 하면서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총 18개 기관의 기관장 등 26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의 유감 표명이 있었고 추후 기관들로 하여금 국회 출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증인 선서를 받지 않고 진행하기로 위원장과 간사 간에 논의가 되었습니다.

제22대 국회를 시작하는 시점에 위원장이 여야 간사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내린 만큼 추후 문체부장관과 국가유산청장,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장들은 국회 출석 의무를 보다 성실히 이행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의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대개 이런 경우에 보면 저렇게 사과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라고 하는데 또 그러면 어떻게 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 놓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전재수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무단으로 국회 일정에 법이 정한 대로 하지 않으면 법에 정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위원장으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의 업무보고를 주요 현안 위주로 간략하게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체부 및 국가유산청을 제외한 16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업무보고 대상 기관 중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은 제33회 파리 하계올림픽 선수단 파견 준비로 인해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대한체육회 윤성욱 사무총장이 대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입니다.

제22대 국회 출범으로 새롭게 구성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는 올해 우리 일상과 세계 시장에서 한국 문화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키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콘텐츠로 경제의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광 인프라 확충 등 방한 관광객 2000만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주 후로 다가온 파리올림픽 또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우리 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부 간부입니다.

용호성 제1차관입니다.

장미란 제2차관입니다.

이진석 차관보입니다.

황성운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보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입니다.
정용욱 종무실장입니다.
유병채 국민소통실장입니다.
김기동 장관정책보좌관입니다.
강수상 대변인입니다.
구경렬 감사관입니다.
이정미 정책기획관입니다.
우승용 비상안전기획관입니다.
이해돈 문화정책관입니다.
신은향 예술정책관입니다.
강대금 지역문화정책관입니다.
김재현 국제문화정책관입니다.
채수희 해외홍보정책관입니다.
김도형 소통정책관입니다.
이준호 소통지원관입니다.
이정은 디지털소통관입니다.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입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입니다.
김용섭 미디어정책국장입니다.
이정우 체육국장입니다.
송윤석 체육협력관입니다.
박종택 관광정책국장입니다.
김근호 관광산업정책관입니다.
다음은 소속 및 공공기관입니다.
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장입니다.
이해영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입니다.
정병국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박은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입니다.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장입니다.
한상준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입니다.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입니다.
김준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입니다.
이정근 한국문학번역원장직무대행입니다.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입니다.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입니다.
윤성욱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입니다.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장입니다.

이석형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본부 간부와 소속 및 공공기관 간부 인사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자료로 대체하고 10쪽 업무 추진 방향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문체부는 문화로 행복한 사회, K-컬처가 이끄는 글로벌 문화 강국이라는 비전 아래 국민 문화여가비 부담 완화, 역동 경제를 이끄는 문화산업 육성, K-컬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신문화 전략, 지역소멸 등 사회문제 해결, 청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문화 등 5대 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팍팍해진 살림에 더 부담되는 문화여가비를 덜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9세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처음으로 발급하여 청년 16만 명에게 최대 15만원의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행가는 달을 연 2회로 확대하고 운동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을 연 11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인상하고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로 콘텐츠, 관광, 스포츠가 역동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합니다.

콘텐츠 수출액은 이차전지, 가전 등의 수출 규모를 넘어서 제조업 중심이었던 한국의 수출 지형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K-콘텐츠가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6000억 원 규모의 민간 중심 K-콘텐츠 전략 펀드를 신규로 조성하는 등 총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콘텐츠 기업이 기획·개발 또 수출 단계에서도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완성보증제도 개편과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게임, 영화, 웹툰 등 장르별 전략적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문체부는 올해 방한 관광객 2000만이라는 과감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문화, 예술, 스포츠, 뷰티, 의료 등 특색 있는 글로벌 축제 및 관광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 융복합 국제회의 육성 등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도 활성화하겠습니다.

2024 한국 방문의 해 계기로 K-관광 로드쇼를 25개 도시로 확대 개최하고 법무부·국토부 등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비자, 교통, 쇼핑 등 입국부터 출국까지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일상 속 스포츠 활성화로 스포츠산업을 도약시키기 위해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지정 스포츠 클럽과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해 역대 최대 3919억 원 규모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셋째, K-컬처 시대, 글로벌 신문화 전략의 새 틀을 마련하겠습니다.

K-컬처의 원동력인 문화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표 작품 창출에 힘쓰겠습니다. 우수 작품의 창작-유통-해외 진출로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세계인이 주목하는 파리올림픽을 계기로 2024 파리 코리아 시즌을 대대적으로 추진하여 한국 문화를 집중 소개할 예정입니다.

20쪽입니다.

이탈리아, 캐나다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통해 국가 간 문화 교류가 민간 문화 교류의 발판이 되도록 하는 한편 한국어, 전통문화, 문화유산 등 우리 고유 문화 확산에도 힘쓰겠습니다. 또 문화 공적개발원조를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를 높여 나감과 동시에 국제사회에서 문화, 관광 의제를 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넷째, 문화로 지역소멸 또 고립감 등 사회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말 예비 승인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의 대표사업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 1000을 여행 상품과 연계하여 지역에 가고, 머물고, 살고 싶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곳곳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공연과 전시를 지원하고 지역 대표 예술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계 자생력도 키워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 지역에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과 디지털 관광 주민증 발급 확대를 통해 지역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다섯째, 새로운 미래를 청년들과 함께 공정·혁신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생성형 인공지능 저작권 안내서를 발표한 데 이어 전문가들과 함께 학습 저작물 이용 시 보상체계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콘텐츠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예술과 기술 간 융합을 통해 아트코리아 랩을 통한 새로운 예술 창·제작 실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또 국립문화기관 청년 인턴을 확대하는 한편 장애 예술·체육인 활동 보장 또 문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관광 분야 공정상생협력센터 설치 등을 통해 공정과 상생 문화 확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요 현안인 파리올림픽 또 패럴림픽 준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 파리올림픽·패럴림픽 선수단의 현지 적응 지원과 심리 안정을 위해 사전훈련 장소를 제공하고 의료 및 한식 위주 영양식 공급을 통해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장애인 국가대표선수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숙소 또 이동, 의과학, 식음료 등을 꼼꼼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시는 고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청 최응천 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귀한 제언과 도움을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새롭게 출범한 국가유산청의 첫 번째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국가유산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훈 차장입니다.

황권순 기획조정관입니다.

임영아 유산정책국장입니다.

이종희 문화유산국장입니다.

여성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입니다.

윤순호 무형유산국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청의 올해 주요업무현황 및 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 성과 및 평가 등의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올해 국가유산청의 비전은 미래 가치를 품고 새롭게 도약하는 국가유산입니다.

이에 따른 네 가지 전략과제는, 첫 번째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 두 번째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 세 번째 국가와 지역발전 신성장 동력으로 가치 확대, 마지막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입니다.

9쪽부터 10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인 국가유산 유형별 맞춤형 보존·전승 강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유산의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보존 관리를 위하여 지정·등록을 확대하고 역사문화권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연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9월 개관하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를 통해 보수·복원을 위한 전통재료들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자연유산의 체계적인 보존·활용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국립자연유산원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전통조경 관리기준 마련 등 동식물, 전통조경, 지질유산 분야별로 다양한 보존·활용사업을 발굴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무형유산이 안정적으로 미래로 전승될 수 있도록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심사방식을 개방적이고 유연하게 개편하여 보다 많은 전승자들이 충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소멸위기에 처한 취약종목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이수자 등 젊은 전승자들에 대한 지원 강화, 전통공예품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 등 안정적 전승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후변화 등 위기로부터 국가유산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풍수해 등 재난에 대한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안전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훼손 취약지역에 대한 긴급조사를 실시하고 돌봄 정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들을 바탕으로 유형별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11쪽부터 12쪽입니다.

국민 모두가 누리는 국가유산 복지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의 삶과 조화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저희청은 규제 간소화를 위해 올해 2월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올해는 하위법령 마련 및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범위 재조정 및 강도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규제가 불가피한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정주환경 개선 등 불편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을 확대 운영하고 세계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4대 궁과 조선왕릉의 콘텐츠를 확충하고 지역별 국가유산 방문의 해 운영 등 광역단위의 국가유산 활용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누구나 어디서나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능 무장애공간 조성, 문화소외지역 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위한 찾아가는 실감체험관 운영 등을 통해 지역민·장애인 등 문화취약계층의 향유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공감과 참여 속에 우리 국가유산을 가꾸고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문화유산 국민신탁운동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을 촉진하고 전 국민의 보호 의식이 함양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쪽부터 1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과제인 국가와 지역발전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가치 확대입니다.

먼저 미래 국가유산의 포괄적·선제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권역별로 추진 중인 역사문화자원의 조사 및 목록화를 마무리하고 향후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8올림픽 굴렁쇠 등 생성된 지 50년 미만의 유산을 예비 문화유산으로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보존·활용하겠습니다.

국가유산이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고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국가유산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조사와 실태 파악, 기업체 연계 청년인턴 사업, 전통문화상품 판로 확대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디지털 헤리티지 활성화를 위하여 지정유산의 3차원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유산 보존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 관련 산업 분야로의 활용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모색하겠습니다.

고도 및 근대역사문화공간 등 역사문화도시를 지역명소로 조성하고 매력적인 야간 특화 콘텐츠를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략과제인 세계로 나아가는 국가유산입니다.

유네스코 등재 확대 및 보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변화된 세계유산 등재 환경에 적극 대응하여 신규 등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발전과 세계유산 보호의 조화를 위한 영향평가제도를 새로이 시행하겠습니다.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서 적극 활동하고 국제기구 협력을 강화하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유산 분야 글로벌 협력을 선도하겠습니다.

ODA 규모 확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중남미·아프리카 등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기후 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부합하는 새로운 협력사업을 개발하겠습니다.

국외 문화유산 환수 및 보호·활용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일본에 이어 프랑스 파리에도 현지 거점을 구축하여 유럽 소재 문화유산 조사 및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현지의 여건을 조사·연구하여 환수전략을 다각화하겠습니다. 또한 소재국과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는 K-공유유산의 현지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협력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적 해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한국유산 정보 글로벌화 사업 등 접근성 강화와 지한과 육성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뿌리 깊은 국제적 지지 기반을 형성하겠습니다.

또한 고품격 콘텐츠 제작 및 다양한 경로를 통한 유통·홍보 등을 통해 우리 유산의 가치를 보다 널리 확산하겠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은 국가유산청으로 새로이 출범하는 것을 계기로 보다 국민들에게 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가유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고민하며 관련 정책과 제도들을 만들고 정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이 새로운 이름과 역할에 걸맞는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불령선인이라는 말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1910년대 일제가 조선인 중 자신들의 명령 및 지도를 따르지 않고 저항하거나 반항하는 조선인들을 지목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소설가이자 시인인 이상도 동경에서 불령선인으로 분류돼 체포된 적이 있었지요.

또 묻겠습니다.

블랙리스트는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말 그대로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명단을 작성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요.

○강유정 위원 사전에는 ‘감시가 필요한 사람, 위험인물의 명단’입니다. 한글로 좀 바꿔 보자면 감시대상 명단, 요주의자 명단 정도 될 것 같은데요.

2019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에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문화예술인의 정치적 성향 및 정치적 표현 행위 사찰·감시·관리, 두 번째는 문화예술 창작·표현 활동 검열 및 각종 지원 등에서 배제하거나 차별하는 것, 세 번째는 블랙리스트 실행을 위한 제도·정책·사업 개악을 만드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이 돼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이것은 장관 재임 시절은 아니지만 ‘윤석열차’ 풍자 카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청소년들이 그런 경연대회 같이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아마 작품이 만들어져서 상을 받았던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자, 정치적인 주제라고 엄중경고 받았는데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부분은 아마 그것을 만든 조직위원회에서 오히려 본인들이 그런 것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놓고 했던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그걸 묻는 게 아니라요. 정치적 주제라고 엄중경고 내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장관님의 개인 의견을 여쭙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이제 본 경연대회의 목적과 좀 다르게 됐다고 그런 경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정치적 주제라면 엄중경고 내리실 생각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건 목적에 맞느냐는 안 맞느냐는 얘기가 되는 거지요.

○강유정 위원 장관님 개인의 의견을 여쭙니다, 개인의 의견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 개인은 말하자면 그런 어떤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여러 가지에서 본인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하겠다라고 했으면 그 목적에 맞으면 괜찮은 거지요.

○강유정 위원 자, 그러면 일종의 제도·정책·사업 개악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자신이 약속해 놓고 하여간 그런 약속을 안 지키 거라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예술가의 창작 의지나 표현의 자유는 침해돼선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뭐……

○강유정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좀 끊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장관께서 2010년에 이미 한번 해 봤던 책임심의관제 제도입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심의관제를 과거에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책임심의관이 배제되거나, 아까 제가 배제는 분명히 블랙리스트 행위에 포함된다라고 백서에 기록된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은 문화예술인들에게 블랙리스트 과정을 좀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이것 부활한 이유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책임심의관제에서 블랙리스트 사태가 났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말이고요.

○강유정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4년에 문예위 책임심의위원 제외하는 과정에서…… 책임심의위원 아마 옆에 계신 용호성 차관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책임심의위원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행위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전담제 심의관을 만드는 과정에 누구를 제외하러, 이 부분은 심의위원에 넣어라 말라 하는 지시 행위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이 문제는 제가 뭐 당시에 있질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책임심의위원을 만든 것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하라고 만든 제도거든요.

○강유정 위원 제가 다시 여쭙보겠습니다.

용호성 차관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차관,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22년 7월 22일 이후에 표창장이나 혹은 뭐 훈장 같은 거 받은 적 있으신가요? 2022년 7월 22일 이후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2022년 7월 22일 이후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강유정 위원 예, 제가 알기로는 블랙리스트 행위 과정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과로 불문경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렇게 불문경고를 당하게 되면 인사기록카드 등재가 되고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차관 되신 것 보니까…… 이 상계하는 게 표창장에 한하여 상계가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표창 안 받으셨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계시는지 혹시 여쭙봐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어쨌든 표창장을 받거나 상계받은 적이 없는데 1차관이 된 것 맞네요? 그건 맞습니다, 그렇지요? 아까 표창이나 수상실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백서에 따르면 2014년 3월 박근혜정부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면서 문예위 심사위……
 심의에 그 배제 대상자를 책임심의위원에 제외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제가 이것 말씀드
 린 겁니다. 2015년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블랙리스트 대상이던 박근혜 연출가와
 협업을 문제 삼아서 공연 조정도 지시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불문경고도 받으셨는데 이런 분이 다시 1차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장관님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자, 이런 상황에서 문화예술인들이 위축감을 느끼는 게 과장일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축감까지는 느끼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책임……

○강유정 위원 그러나 아까 분명히 장관께서 ‘윤석열차’를 보면서도 장황하게 표현의 자
 유 침해가 있으니 지켜 주겠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고 제가 이따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잼버리는 어느 부처 주관 행사였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잼버리는 아마 전라북도와 여성가족부와……

○강유정 위원 여가부 주관 행사였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자, 그런데 마지막 날 상암체육장에 대중문화예술인들이 왔는데……

○위원장 전재수 나중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강유정 위원 혹시 1분 추가질의는 아직은 안 되고 이따 할까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답변은 듣고, 딱 하나만 묻고 답변만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강유정 위원 용호성 차관에게 묻겠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2023년 8월 어디서 어떤 일 하고 계셨는지 여
 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에 근무하고 있었고요.

○강유정 위원 아니아니요, 정확하게 어떤 부서…… 문화체육관광부에 33년 근무하셨잖
 아요.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해외문화홍보원에서 해외문화홍보기획관 하고……

○강유정 위원 잼버리 폐막식 때 해외문화 하셨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리고 그다음에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일하고 있었습
 니다.

○강유정 위원 맞습니다. 잼버리 폐막식에 대중문화예술인 연결해 주신 것 본인 맞으시
 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때 업무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추가질의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대구 북구를 출신 김승수입니다.

앞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를 주셨었는데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만진원의 ‘윤석열차’ 관련해 가지고는 당초에 문체부의 후원을 승인할 때,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 정치적인 소재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상 대상에서 배제한다 그렇게 결재를 받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위배했기 때문에 조치가 취해졌던 거고요.

그다음에 저도 공직생활을 30년 이상 했지만 불문경고는 징계 수위의 가장 낮은 부분이고 말 그대로 경고지만 불문에 부치겠다는 겁니다. 크게 인사상의 불이익이 없고요. 특히 정무직 임용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장관님, 만리장성의 길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만리장성이 우리 한반도의 영토 위에까지 설치가 됐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만리장성은 말 그대로 중국 영토 내에서 주로 중국의 북쪽 지방에 있는 오랑캐를 막기 위해서 설치가 됐던 그런 장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만리장성이……

앞에 좀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여기 보시면 아마존의 세계사 책 중에서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월드 히스토리’에 보면 지금 만리장성이, 굉장히 많은 세계 사람들이 보는 건데 한반도 영토까지 그대로 뻗쳐와 있습니다. 이걸 뭐냐? 결국은 과거에 고구려, 발해, 그 이전의 이런 부분까지 다 이게 중국의 영토였다는 그런 쪽의 주장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만리장성의 길이가 옛가락 늘어나듯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애초에 유네스코에 등재할 때만 하더라도 이게 불과 6352km, 1만km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반도까지 포함해 가지고 무려 2만km 이상 이게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세계사라든지 역사라든지 지식이라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주로 어떻게 그 부분을 문의해서 찾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래도 요새는 많은 부분에 검색을 할 수 있으니까요.

○**김승수** 위원 요즘은 특히 보면 생성형 AI가 아주 고도화되면서 챗GPT 같은 생성형 AI에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한국의 여러 가지 현안들, 고대사 관련해서 질문을 해 본 화면입니다.

만리장성의 길이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에서 질문하니까 2만 1000km가 넘는답입니다. 중국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겁니다. 오픈AI,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는 어디 영토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일본의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해 위에 위치한 작은 섬 이런 식으로 오픈AI, 챗GPT나 코파일럿에 그대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냥 뭐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그냥 리앙쿠르 록스라고 이렇게 또 실려 있는 곳도 있고요.

엄연히 동해로 명칭이 돼야 될 것이 일본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본해 위에 독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섬처럼 인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이미 작년에 민간단체와 협약도 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어도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김승수 위원 이게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제가 꾸준히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역사 왜곡 또 중국과 일본 등 우리 인근 국가로부터의 의도적인 역사 왜곡이라든지 또 본인 자국에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는 이런 것들에 빨리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앞서 만리장성뿐만 아니고 김치에 대해서도 파오차이라고 해서 마치 자기들 것인 양 그렇게 했었고 우리 드라마 ‘조선구마사’의 여러 가지 소품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게 의도적인, 의도가 다분한 그런 쪽으로 중국의 음식들을 그대로 나오도록 했고 또 게임 같은 경우에도 ‘황제라 칭하라’, 아이유가 입은 한복을 마치 중국의 옷처럼 이렇게 갈수록 외국의 한국사 왜곡에 대한 수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교묘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아주 여전히 좀 느슨하고 한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못 하고 있는 일을 오히려 반크와 같은 민간단체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너무 보기가 안 났어서 제가 지난 21대 국회 때 반크와 문체부뿐만 아니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를 같이 불러 가지고 이것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이 같이 연대해서 이에 대책을 세워 나갈 수 없겠느냐 해서 간담회를 몇 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부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했고 또 그런 TF나 모임을 계속 이어 나가기로 했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문체부에서도 박 전 장관이 반크와 업무협약을 하면서 여러 가지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이런 발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보균 장관이 업무협약했던 내용들이 지금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크게 보면 다섯 가지 내용들을 그때 협약에 반영했었는데 지켜진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동안에 협의는 계속해 왔고요. 또 나름대로의 정보 공유하고 또 대표적인 오류 사례집 같은 것을 제작하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지금 모니터링 열심히 하고 끊임없이 이런 시정조치 요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김승수 위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정보, 지식을 검색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고 최근 또 K-콘텐츠 붐에 따라서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승수 위원 이럴 때일수록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왜곡된 정보보다는 올바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보균 장관이 협약을 맺었던 그 부분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도해 나가시고 다른 부처도 문체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교육부하고 외교부하고 협력을 해서 모니터링 강화하고요. 이걸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강하게 정책도 만들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국가유산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각고의 노력 끝에 제가 이제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세트 법안을 발의해서 국가유산청을 개청하게 됐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초대 청장으로 계신데요. 몇 월에 우리가 새로이 개청이 됐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올해 5월 17일입니다.

○배현진 위원 이제 불과 두 달여 됐는데 지금 장마철도 됐고 앞서 업무보고에서 말씀하신 대로 풍수해나 이런 것들, 문화유산들 다치지 않도록 또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지금 갑자기 또 지진 피해도 저희들이 안전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서 불안 지진 같은 것 바로 저희가 내려가서 조치를 했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제 국가유산청으로 발돋움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유무형 문화재를 넘어서 우리의 소중한 자연유산 등 정신유산까지 세계에 알릴 기회가 더 많이 생겼는데요.

지난 21대에 저희가 같이해 온 소중한 일들이 있지요. 저희 의원실과 400년 넘은 우리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일본에 불법 반출됐던 것을 찾아서 월정사로 돌려 보내고 우리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을 개관하는 성과도 거뒀고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본 의원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를 세종에 유치하지 않았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 해석설명센터를 저희가 유치하도록 한 것은 지금 여야가 함께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는 사도 광산 등 어떤 국가적인 역사적인 쟁점 사안으로, 특히 우리가 억울함을 굉장히 해소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이왕이면 우리 대한민국이 주체가 돼서 진짜 억울함 없이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역사적인 문제를 해석하고 그리고 유네스코에 그것을 전달하고 그 문제가 풀리도록 하려고 그것을 만든 거거든요. 이 취지 같이 공감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21년도에 본 위원이 유네스코에 굉장히 많은 레터를 보내서 유네스코에서

21년 44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전체에서 일본의 산업유산, 도쿄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에 일본이 14년에 약속했던 대로 강제징용 역사에 대한 그 표기를 하라는 규탄성명을 내고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배현진 위원 21대 죽 걸쳐서 저희가 군함도뿐만 아니라 사도 광산 등 저희 징용 역사를 담았던 그 아픈 역사들을 일본이 인정하고 그것을 세계유산으로, 지금 메이지 유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타깝게도 그냥 일본의 산업혁명 유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록에 남겨라라고 했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여러 권고가 있어 왔고 아까 말씀하신 방문센터에도 보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놓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배현진 위원 아직도 버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대에도 여러 번 말했지만 저희 조부께서도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십니다. 저는 이 문제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남아 있는 많은 그 후손들에게 굉장히 뼈아픈 역사라고 생각하고 국민 모두가 아파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네스코도 이렇게 전체위원회를 통해서 일본에 강경하게 이 문제를 표시해라라고 하고 있는데 정작 본 위원과 유산청이 함께 유치했던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가 이 문제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 제가 좀 의문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청장님께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유산청 자료를 좀 확인했더니요 유산청의 산하기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국제해석설명센터가 유치된 이후에 매년 수억 원의 예산은 받고 있으나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사도 광산 문제에 관해서는 세계유산 해석전략 수립을 위한 갈등, 세계유산 사례 연구 이 2장짜리 자료만 지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청장님, 알고 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간략하게 보고는 받았습니다.

○배현진 위원 유네스코의 취지에 따라서 해석설명센터가 물론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역사적 쟁점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아랍에서도 자국 역사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이 오고 그 많은 요청들을 해소해야 하는 중립기관인 것은 인정은 합니다. 그래도 저희가 법까지 만들면서 우리 대한민국에 유치한 이유가 있겠지요. 그리고 우리 국가 예산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또 있겠지요.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중점적으로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네스코 국제해석설명센터가 이렇게 한국에 유치된 것은 굉장히 큰 성과이자 앞으로 많은 기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조직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비 과정에 있고요.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잘 아시겠지만 작년 11월에 저희가 유네스코 위원국으로 선출이 되면서 그 부분을 좀 더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지난 21대에서 설명드렸다고 피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LA 홍사단 단소를 중국 건설사가 철거하고 아파트를 지으려던 그 계획을 제가 무산시켜 달라고, 당시에 여기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도 청와대에 계셨는데 제가 장관께도 부탁드리고 굉장히 많이

찾아가서 읍소를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다행히 저희 예산을 들여서 처음으로 국가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가 예산으로 해외에 있는 유적지를 사서 철거 위기에서 구조하는 그런 성과도 얻었는데요.

유산청으로 청이 더 확대되고 개편된 만큼 특히 우리 역사에 대한 이런 뼈아픈 문제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지난해지만 23년에는 대한민국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국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배현진 위원 일제 강제징용 역사에 대한 것은 정말 아직까지 남아 있는 뼈아픈 상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강력히 발언하고 또 투표하시고 저희 국민들의 그런 염원을 해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우리 역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특히 유산청에서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지금 왼쪽에 앉아 계시는 용호성 차관 엇그제 임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예술계에서 부적절한 인사라고 지금 반발이 심하데요, 성명이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썄요, 그것은 아무래도 예전에 블랙리스트 관여돼 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 문화부에 그렇게 된 사람이 거의 190명?

○민형배 위원 아, 여러 분 중의 한 분이니까 상관없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아니요,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문화예술 쪽으로 가장 능력도 있고 이미 그동안 증명이 다 된……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장관님도 찬성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찬성하고 말고가 없지요.

○민형배 위원 이 임명에 찬성하셨느냐고. 장관께 의사를 묻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그것은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제가……

○민형배 위원 아니, 보통…… 저도 청와대 인사를, 대통령실 인사를 해 봤는데, 묻지 않습니까, 장관한테 묻지요, 보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뭐 그것은……

○민형배 위원 좌우간에 찬성하셨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장관님도 이 국정원 문건에 보니까 2009~2010년에, ‘좌파 연예인들의 대정부 비판활동 견제 방안’ 이런 문건들을 보면 블랙리스트에 가담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제가……

○민형배 위원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실 것으로 제가 예상했는데 여기 내용에 보니까 문화부에서 한 일이 여럿 나오던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작년 인사청문회 때, 국정감사에 이 얘기 여러 번 드렸었거든요.

○민형배 위원 그래서 그냥 무더져 계신 것 아닌가 싶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굉장히 무더져 있다.

지금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이게 제가 볼 때는 시즌 3인데, 이때 첫 번째로 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정부 때 또 있었고 그리고 지금 시즌 3.

한번 보실까요, 요즘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문화예술계 검열 일지’라고 제가 붙여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20건이나 나와요, 지금. 저기에 지금 너무 무더게 여기고 계신 것 아닌가, 이번 인사를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렇게 많은, 저것 봐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이것 전혀 잘 인지를 못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렇게……

○민형배 위원 그게 문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런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별것 아니게, 가볍게 생각하고 계신다.

처음 보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말씀으로 얘기하면요 이런 블랙리스트 문제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여러 사람이지만……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변호인’이라는 영화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압니다.

○민형배 위원 그때 용 차관께서 이게 한국영화제, 그러니까 파리한국영화제 출품작이었는데 이걸 못 하도록 한 것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용 차관님, 못 하게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그럴……

○민형배 위원 그 당시에 청와대에 계시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부분은 사실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떻게 달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일단 청와대 내에서 업무분장이 나뉘져 있었었고 콘텐츠산업 분야 쪽은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았습니니다.

○민형배 위원 다음 자료 한번 보실까요?

저렇게 나와 있는데, 저렇게 나와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다음에 ‘개구리’라는 것 기억하십니까, ‘개구리’라는 작품? 그때도 배제시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것도 약간 맥락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요. 저기 다 나와 있는데 그걸 맥락이라고 그러십니까, 맥락 문제라고 그러십니까? 제가 맥락을 잘못 이해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제가 그 사건이 있었던 국악원에, 그 시기에 실제로 국악원에 근무를 하고 있지 않았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당시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한 달 반 정도 제가 발령을 받아서……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런 자료들이, 특히 수사자료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말씀이세요? 수사받으셨을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당시에 충분히 소명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쨌든 지금 이 블랙리스트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계의 여러 단체들이 문화부차관, 특히 1차관으로서 적절치 않다, 문화예술 분야를 관장하는 차관으로서 적절치 않다고 그래요. 물러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데.

그러니까 정말 문화계 검열이나 블랙리스트 이런 사건들은 정말 문화적이어야 할 부처가 그야말로 야만적인 행태를 보인 경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말씀드릴까요, 제가요?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장관님 말고 본인한테 제가 묻잖아요.

그 자리에 계속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장관님도 무디고 차관님은 당사자고.

얼른 말씀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전에……

○민형배 위원 못 하시겠으면 생각해 보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장관님, 올해 5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를 하고 청와대재단이 주관한, 춘추관에서—옛 춘추관이지요—‘희망을 그리는 아이들’이라는 전시회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우크라이나 아이들이 그랬던……

○민형배 위원 장관님 다녀오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에 당시에는 명품가방 수수 논란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5월 21일 전시장을 방문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왜 방문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우크라이나 전시가 그 전에 국민 방문했을 때 그쪽 하고 약속이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민형배 위원 예, 취지가 참 좋은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래서 아마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참 좋은데, 취지가 좋지요. 우크라이나 아동 미술 전시, 좋은데.

그런데요 영상 홍보물을 한번 봐 보실게요.

한번 올려 주실래요? 소리가 안 나오니까? 동영상 안 돌아갑……

멈춰 주십시오, 잠깐만.

(영상자료 상영)

자, 이게 전시장에서 계속 무한 반복되는 2분 38초짜리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의 1분 30초가 김건희 여사의 영상이에요. 지금 나오는 것, 계속 김건희 여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미술 전시회의 홍보영상인지…… 저기 보십시오.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게 김건희 여사 홍보영상인지 알 수가 없을 만큼, 2분 38초 중 1분 30초 이상이 계속 김건희 여사가 등장해요.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아마 예전에 촬영했던 것을 영상 편집해서 다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만든다는 것은 저는 몰랐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현장에서 아이들의, 전쟁의 폐허가 된 그 그림 전시를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한 당사자니까 아마 당연히 그 과정을 영상으로 편집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제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고, 미술 전시회 영상이면 미술 전시회 홍보를 해야 되는데 뜬금없이 김 여사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적절하냐고 제가 묻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미술 전시회 관련된 영상입니다, 이게.

○민형배 위원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청와대 개방 2주년 행사에는 이게 없었지요? 원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개방 2주년에…… 아니, 그것 같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민형배 위원 어허, 장관님 왜 이러십니까? 원래 없었잖아요. 그런데 끼워 넣기 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청와대 자체를 활용하는 게 공연·전시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애초부터……

아니,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약속은 오래된 것이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아니, 이 미술 전시회는 당초에 청와대 개방 2주년 전시사업에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장관님이 결재 안 하셨어요? 이걸 끼워 넣기 한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끼워 넣기 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큰 이런 전시가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그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도 많이 드는 전시가 아니고 아이들 그림이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 그림이면 아이들 그림에 관한 홍보가 되고, 그 기획의 내용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나온 부분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거기 목적에 맞게 해야지 왜 뜬금없이 김건희 여사가 나와 가지고 자기 홍보를 하고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그것은……

○민형배 위원 그런데 그걸 모른다고 그러시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아이들 그림을 전시하는 과정을 정리한 영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아니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다시요, 이 행사가 당초 없었는데 명품가방 수수 논란으로 시끄러울 때 이게 살짝 그 행사 안에 들어가서 활동을 한 거예요, 원래 문화부 계획에 없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 확인해서 저희 의원실로 좀 보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 전체적인 과정까지 해 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을 숨기거나 뭐 이런 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민형배 위원 아니, 이러니까 자꾸 건비어천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웬 아동미술 전시회 홍보물에다 저렇게……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14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주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울 서초출의 신동욱입니다.

먼저 문화부장관께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혹시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에서 언론매체의 신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우리 국내 사정으로는 국민들이 더 많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 외에 신뢰도를 조사하는 그런 기관 이런 데서 조사해서 발표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 신뢰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 나의 이익과는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이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미디어 환경이 굉장히 다극화돼 있는 이런 시대에서 언론의 신뢰라는 것을 수치화하기가 쉽다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은 환경 자체가 너무 많이 변했고 매체 자체가 워낙에 다양해져서요 사실은 그것을 수치로 계량화한다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언론계에 있을 때 매년 인용을 많이 당한 그런 조사여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라는 곳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혹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 작년 상임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질의가 꽤 많이 있었고요. 또 그 당시에 평가하는 여러 가지의 의미로 봤을 때는 그 신뢰도를 이렇게 완벽하게 갖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런 것으로 조금 제재가 되냐 안 되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논들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언론재단 이사장님 혹시 계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신동욱 위원 계시지요?

올해 순서를 삭제했다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순서를 삭제한 것은 아니고요. 그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 매년 보도자료, 요약본……

○신동욱 위원 마이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리포트가 나오면 요약본을 내고 보도자료를 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게 약간 문제가 되어서 제가 그 자료를 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우선 첫째는 표본 채집 방법이 이른바 확률형 표본 채집 방법이 아니고 비확률형 표본 채집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쓴다고, 사용한다고 로이터연구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비확률 표집이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약간 좀 복잡한 개념인데요.

○신동욱 위원 짚막하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짚막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100번 조사를 했을 때 최소한 90번 이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정도의, 인구 구성 비율, 지역, 성별 또는 소득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한 표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임의로 만드는 표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그 표본에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pm 2\%p$ 는 아무 의미가 없고 매우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고 로이터연구소가 밝히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제가 통계학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표본을 임의로 추출할 수도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확률형 표본 채집 방법이 있고요 비확률형 표본 채집 방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것을 언론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옳은 방식인가요, 그러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래서 제가 그걸 봤더니 그게 옳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맨 먼저 의심을 했던 것은 이겁니다. 그 조사기관이 조사해서 발표한 세계 언론 신뢰도 조사가 있는데요. 나이지리아하고 케냐가 2등·3등을 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보다 훨씬 높게. 그래서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가, 그래서 봤더니 그 표본 추출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언제 사용하느냐 하면 대개 어떤 추세나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순위나 이런 걸 매기는 데에는 적절하지 않은 그런 조사 결과로 저는 보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순위는 다 배제하시고 발표를 하실 생각이신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순위라는 게, 사실은 지금 KBS·MBC·SBS가 전부 $\pm 2\%$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사 결과를 가지고 각 회사가 우리가 1등을 했다 또는 우리가 작년보다 나아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그 회사들의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국가공인기관이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해서 마치 언론의 신뢰도를 줄 세우기 하는 것 같은, 순위를 매기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은 옳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회사와의 계약이 올해 말로 끝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저희 이사진과……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언론재단도 그동안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하고 이 조사에 참여는 하셨던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우리가 참여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거기 파트너 회사여서 거기에다가 회비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는 올 연말에 새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동안 이 연구소의 결과를 특정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인용하고 또 퍼뜨린 건 잘 아시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변화들이 있거든요. 신뢰도 조사가 약간의 차이 식으로 1·2·3등 이렇게 정해 준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제일 높게 나온 회사는 ‘아, 여기서 우리가 1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회사들은 대개 보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고 그렇게 나갑니다.

실제로 이 문제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요, 필리핀에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은 여성 언론인이 있는데 그 언론인이 소속된 회사가 이 조사에서 맨날 꼴찌가 나왔어요. 그래 가지고 두테르테 정부로부터 무지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그 여성 스스로가 이 조사 회사의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조사 보고서가 매년 어떤 특정 경향성을 좀 띄는 것 같아서 우려의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저는 어제 장관님과 충남 해미 국제성지 성당에서 미사를 같이 한 후에 몇 가지 말씀을 좀 나눌 기회가 있었고 또 오늘 회의 시작 모두에서 지난번 상임위에 무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는 두 가지를 통해서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아는 유인촌 장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제의 대화에서도 굉장히, 보면 문화 정책 전반에 관한 열린 어떤 비전이나 철학을 느낄 수 있었고 저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오늘도 사과를 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유감 표명만 하는 것이 형식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그런 건데 마지막에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까지 붙여서 사과의 진정성까지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 문체위가 정말 여야 간의 어떤 정쟁에 휘말리지 않고 대통령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가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잘 협조하고 머리를 맞대고 그런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이해한다는 명분 아래 정치적 정쟁 같은 것들에 정부가 자꾸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뒤에 앉아 계신 정병국 전 장관님, 문체위 위원장도 하셨는데 그런 국회의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장관님도 두 번째 장관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잘 보면서 좋은, 그야말로 문체위라는 이름에 맞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저희가 같이 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체위에 와서 첫 번째 질문인데 제가 그렇게 큰 아는 점이 없어서 그냥 우선 평범한 질문 몇 가지를 먼저 질문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윤석열 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정과제는 일상이 풍요로워지는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가 지금 잘 이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사실은 그 계획에 변경도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정책도 많이 만들어야 하고, 기본적인 건 결국 국민들의 삶의 질의 향상 또는 지역 간의 문화 격차 해소 그다음에 우리의 K-컬처와 국제 무대에서 더 날개를 펴고 날 수 있게 하는 것, 이 세 가지 문제는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도록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우선 예산 문제가 좀 심각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체부 예산 축소, 2020년에서 24년까지 5년간 국가 전체 예산은 연평균 증가율이 6.4%인 반면에 문체부 예산 증가율은 1.8%에 불과하다. 국가 전체 대비 문체부 예산 비중도 2020년 1.27%에서 2024년 1.06%로 쪼그라들었다, 지금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정과제는 제가 봐도 잘 설정이 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

한 예산 확보의 문제는 좀 심각한 수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서도 국민소통실의 국정 홍보 예산이 2020년에서 2024년까지 연평균 11.8% 증가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국정과제를 정성껏 성의껏 진정성 있게 잘하면 국정 홍보 예산만 이렇게 막 증가를 안 시켜도 충분하게 국민께서 알아주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기형적인 예산의 증가에 대해서는 또 한번 다시 들여다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 이 관련 예산의 확보에 정말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고 또 필요하다면 문체위를 통한 국회의 협조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정말 예산이 이렇게 심각하게 삭감된 것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특히 예산 문제는 국회, 특히 상임위에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힘들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도, 문화부 자체가 규제 부서가 아니고 진흥 부서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지원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국력에 걸맞게 우선 한 1.5%라도 내년에는 증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어제 장관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도 있었던 내용인데 지역별 문화 향유 격차가 여전히 심각하다, 예산도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차이가 있다. 그다음에 신진 예술인과 장애 예술 지원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본 위원이 서면질의를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릴 테니 자세히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유감을 표하고 싶은 것은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예산과 관련해서 처음에는 셀프 초청 구조였다가 그다음에는 기내식 비용으로 옮겨 갔고 지금은 예산 사용 주체의 문제를 가지고 또 오해들이 있으셔서 이 문제를 두 번째 기내식 비용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문체부가 가지고 있었던 자세한 식비 내용들을 빨리 공개를 해 주셨으면 이런 소모적 논쟁이 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충분히 공개해도 될 문제들을 왜 문체부가 그렇게 자료제출을 미적거리고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역시 제가 서면으로 전체를 정리해서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록 할 텐데 잘 읽어 보시고 소신 있게 중심을 잡을 때는 정확하게 잡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 문제는, 사실 저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용은 제가 직접 잘 알 수는 없지만 문화부 내에 지금 남아 있는 기록을 근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미 다 공개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서면상으로 질의를 주시면 자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도 있고, 어렵지만 지혜롭게 잘 넘어서 진짜 김구 선생의 말씀처럼 문화의 향기가 정말 높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정부와 국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안녕하세요?

○김재원 위원 앞서 박수현 위원님의 질의 순서에 장관의 태도가 이전하고는 굉장히 많이 현저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면서 장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것도 같고요. 그러나 오늘 준비해 온 질의는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먼저 여쭙보겠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사람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말 그대로 우리 문화·예술·체육·관광, 그 외에 저희들이 맡은 업무가 종교, 언론, 홍보 이런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진흥하는 그런 일입니다.

○김재원 위원 정부 구성 시에 이러한 문화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기초를 마련하고 또 장관이 임명되면 현 정부 문화 정책에 대한 기초를 대변하고 행정을 수행하는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헌법 제11조, 제21조, 제23조, 제37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헌법을 그렇게 조문까지 잘 기억하고는 있지 못합니다.

○김재원 위원 문화기본법 제4조나 아니면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7조는 기억이 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술인 권리 보장법은 아마 지난번 정부에서 대개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것으로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대개 이 법들을 얘기하자면 국민이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그다음에 학문과 예술의 자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이 어떻게 보장하는지 말을 해 줍니다. 문화기본법 제4조는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술인 권리 보장법 제7조는 또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일 날 장관 주재 체육 분야 간담회에서 ‘국정농단이나 블랙리스트 같은 이야기는 체육인이 하는 소리가 아니다. 국회에서나 듣는 얘기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난해 10월 5일 인사청문회 때 ‘이명박 정부에서 블랙리스트라는 말도 없었고 실체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셨는데 여전히 같은 의견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김재원 위원 2023년 11월 대한민국 법원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문화예술계 인사들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각 원고에게 50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장관의 답변이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단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거부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여도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저 경우하고는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관여된 것들은 아마 그 당시 국정원에서의 보통 동향보고 이런 거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 자체가 블랙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런 것들이 70년대부터 사실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날 용호성 실장이 제1차관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서, 용호성 차관은 블랙리스트 백서에 수차례 언급되고 조사위가 수사 의뢰를 요구한 3인 중 하나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또 문체부로 문화예술계 배제 인사 명단을 전달한 바도 있고요.

또 오전에 다른 위원님들 자료 제시하셨던 것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장관이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검찰의 최종 결론은 혐의 없음이 아니라 ‘사실 여부에 대한 의견 상충만으로 이들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였습니다. 용 차관이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된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예전 블랙리스트 가해자가 이렇게 부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형배 위원의 뒤를 이어서 묻겠습니다. 장관이 이 정부의 기조에 따라 블랙리스트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면 블랙리스트 부역자가 아니라고 양심을 걸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저는 현장에 있던 사람이고 제가 제 동료들을 그런 식으로 배제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 인사청문회 때 장관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하는 예술인을 두고 ‘저는 반대하는 분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문화행동가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바로 블랙리스트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는 문체부장관이 자신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술인들에 대해 차별을 두고 이념으로 나눠서 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앞서서 언급한 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와 대치되는 발언입니다.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국가 예술 지원의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블랙리스트는 비단 문화예술인 권리 침해뿐만이 아니라 이념과 상관없이 문화기본법 제4조에 언급된 모든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화권을 말소하는 행위입니다.

문체부장관과 차관은 공정성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중히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말씀하시지요.

○김재원 위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장관이 24년 4월 26일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9명을 위촉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위촉되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아마 추천위원회가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임명만 하는 거지요.

○김재원 위원 20명 이상 30명 이하를 문체부장관에게 추천하게 돼 있고요.

이번에 몇 명 추천받으셨고 어떻게 선정을 하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미 추천위원회에서 아마 한 2명, 3명 이렇게 압축해서 저한테 올라온 분들 중에서 제가 임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총 서른세 분을 추천을 받아서 별도의 선정 회의 없이 목록 보고 장관께서 9명 위원을 선정해서 위촉을 하셨습니다. 이 아홉 분은 온전히 장관의 기조와 의중이 반영된 사람들이라고 봐도 되겠지요? 별도의 선정 회의가 없었으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전체적으로 그분들은 대부분 다 전문가들이시고요. 다 영화에 관련된 분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김병재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나와 주십시오.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영화진흥위원회 사무국장 역임하셨지요?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김재원 위원 당시에 강한섭 영진위원장이 200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위 등급 E 등급, 기관장 평가에서 미흡 판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해임을 건의를 했었고요, 당시에 유인촌 문화체육부장관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맞습니까?

○영상물등급위원장 김병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명백히 최하위 평가 때문에 임기 마치지 못한 건데 외부에서 다른 소리를 하셨더라고요.

PPT 보겠습니다.

당시에 ‘문화계 중 영화계만큼 좌파들이 실세를 이루고 있는 곳이 없다’, ‘영화계가 가장 좌 쪽으로 경도돼 있다’……

다음 PPT 보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을 상영했다가 당시 박근혜정부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원금 50% 감축되었습니다.

1분만 주십시오.

당시에 영진위 관계자가, 다음 PPT인데요, ‘부산영화제 기고문’이라는 파일과 함께 ‘기고문 초안 보내드립니다. 검토하시고 회신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일 보낸 사실 도종환 국회의원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실상은 영진위가 진행한, 개인적인 소견을 밝힌 거라고 하셨지만 이 메일은 부산영화제 여론 조작, 대필 기고에 동참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공범이라고 볼 수 있는 사실인 거지요.

위원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면 봐 주시지요.

이번에 임명된 허엽 부위원장의 2008년 8월 ‘좌편향된 문화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칼럼입니다.

그다음에 이용남 위원, 블랙리스트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영화계 우파 인사인데요. ‘특검서 블랙리스트 확보? 빨갓하지 말라!’ 칼럼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위협하는 종북좌파의 이념과 문화에 대해 대한민국의 이념과 문화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하셨습니다.

또 PPT 다음 것 보시지요.

김윤희 위원님, 이용남의 제자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알려졌습니다. 정부 비판하는 영화의 공동 감독 정도인데요.

장관, 이번에 손수 뽑으신 인물들이 이런 사람인 것 다 알고 뽑으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한 내역은 잘 모르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마 위원님 말씀에 제가 다 동감은 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다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으로 다 생겨난 일들이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또 블랙리스트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면 상처를 서로 먼저 주고 치유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예. 그러나 아직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했었던 자, 블랙리스트 사건에 부역한 자, 좌파 문화권력 청산 요구해 온 자…… 그래서 앞으로 영상물의 윤리성과 공공성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걱정되지 않도록 제가 다 잘 정리할 거고요. 그 상처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김재원 위원 그러나 장관보다 더 힘든 문화예술인이 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가해자 같아 보이시지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저는 직접 이런 얘기 하고 싶지는 않지만……

○김재원 위원 제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시지요.

위원회 구성, 타 논의처 없이 장관 혼자 결정해서 생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개정해 보겠습니다. 장관은 해당 시행령 개정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다 추천위원회 추천 받아서 올라오는 과정, 걸려져서 임명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의 양문석입니다.

정향미 저작권국장님, 서서 대답해 주세요.

저작권법 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아시지요? 내용이 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

○양문석 위원 빨리빨리 해 주세요. 시간 없어요.

내용이 뭐예요? 여기서 시간 다 끝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핵심이 뭐예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런데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잠깐만요.

정부로부터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가 핵심이잖아요, 24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양문석 위원 KTV 원장님, 마이크 들어 주세요.

KTV, 공무원들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국가기관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KTV의 저작물들은 국민들이 KTV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공공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저작권……

○양문석 위원 뉴스와 비평에 사용되면 사용할 수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사용을 하더라도……

○양문석 위원 아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기본적으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사용할 수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양문석 위원 KTV가 수십만 개의 유튜브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단이 있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모니터단은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자체적으로 간헐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자료 영상 사용했던 유튜브 47개 삭제 요청했지요, 유튜브에?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윤석열 대통령 9건, 대통령 부인 김건희 38건,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런데 그게 저작권 위반 때문에 저희가 삭제 요청을 한 것이고……

○양문석 위원 맞지요? 맞나 안 맞나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요청해서, 삭제 요청했고 삭제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삭제 요청을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삭제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삭제는 유튜브에서, 유튜브 코리아에서 한 것도 있고……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삭제 요청을 했으니까 삭제를 했을 것 아니에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본인들이 자진 삭제……

○양문석 위원 어떻게 48개를 추출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어떻게 48개를 추출했냐고요, 모니터링했냐고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로 발견을 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단순 자료 사용이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단순 자료 사용이기는 하지만 심각한 저작권 위반 사례였습니다.

○양문석 위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대통령 부인 것 38건, 대통령 것 9건…… 선출된 권력 대통령에 대해서는 만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것은 9개밖에 안 되는데 대통령 부인 게 38개예요. 균형의 문제가 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닙니다. 그것은 저작권 문제가……

○양문석 위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9 대 38인데 문제가 없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아니, 그것은 저작권 위반 사례가 그 건에 대해서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단순 자료 사용이에요, 단순 자료 사용.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단순 자료 사용인데 그것을 국민이 허가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KTV가 유튜브에 삭제 요청을 하고 삭제를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백번 양보해서 문제가 있다 칩시다. 대통령 것을 훨씬 더 많이 삭제를 요청해야지 어떻게 대통령 부인 것을 훨씬 더 많이 삭제 요청을 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영부인과 관련된 영상에 대한 저작권 위반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 기준이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용이 훨씬 더 많아요. 기본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간헐적으로 모니터링한다면, 그게 비확률적 표본 표집이든 확률적 표본 표집이든……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세요? KTV가 한 것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것 없잖아요?

두 번째, 고소하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고소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 형사고발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저작권국장님, 24조의2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일단 원칙은……

○양문석 위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세요, 그 법만.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지금 법률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읽어 드릴게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예, 단서조항도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양문석 위원 아, 단서조항 제가 이야기할게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국장 정향미 그게 아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나 개인의 사생활 또는……

○양문석 위원 국가안전보장…… 좋아, 오케이, 됐습니다.

KTV 원장님, 국가안전과 관련해 문제 있었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런 것은 아니고 저작권 위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양문석 위원 뉴스와 비평의 문제지요? 뉴스와 비평 문제 아니에요, 맞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뉴스와 비평의 문제이긴 하지만……

○양문석 위원 하지만이 아니에요. 그냥 뉴스와 비평이에요. 무슨 하지만이에요?

그리고 고소한 거 봅시다, 고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저작권 위반 관련 건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본연히 저작권법에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데 고소를 해요? 단군 이래 처음이에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 어떤 정부가 KTV 자료화면 썼다고 고소를 해요? 처음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처음이지요? 처음입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변호인 누구예요? 고소장 썼던 변호인 누구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한……

○양문석 위원 아직까지 파악 못 하셨어요, 국회 나오시면서?

최지우 누구예요, 변호사 최지우? 고소장에는요 전 원장 하종대, 담당 변호사 최지우.

최지우 누구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전 행정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통령실 행정관이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현재 김건희 변호인이지요? 몰라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과는 별개로……

○양문석 위원 김건희 변호인인지 몰라요, 알아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제가 모르는 사실입니다.

○양문석 위원 정보 보고 안 해 주나 봐요, 밑에서?

오늘 나왔던 최지우의 문자 있습니다. 김건희의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라고 JTBC에 항

의하는 김건희의 변호인입니다.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김건희와 관련해서 영상 삭제 요청에, 고소에 그리고 그 고소인이 김건희의 변호사예요. 그리고 직전에, 고소하기 전에 대통령실에 있었어요.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것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변호사, 변호인을 선임……

○김승수 위원 그것하고 뭐 국정농단하고 상관있어요?

○양문석 위원 잠깐 있어 보세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김승수 위원 발언시간 초과했잖아요!

○양문석 위원 지금 내 시간에 내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김승수 위원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래!

○양문석 위원 어디서 함부로 툭툭 툭툭 튀어나와, 버릇없이!

○김승수 위원 어디 버릇없다 얘기해! 초선답게 얘기해!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양문석 위원님 계속 질의……

○양문석 위원 계속 갑니다.

이 문제, KTV가 김건희TV, 김스TV입니까? 아니에요, 기예요? KTV가 뭐 하는 데예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절대 아닙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지요? 아닌데 왜 KTV가 김스TV처럼 김건희 심기 경호하는 데, 삭제 요청하고 고소하고…… 이게 정상적입니까?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저작권 위반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저작권 위반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허락 안 받아도 된다고 저작권법 24조의2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왜 이런 짓을 하면서 국가를 욕 먹고……

(책을 들어 보이며)

이 자료 한번 보세요. 문화부가 정말 새벽까지 만들어서…… 주요업무계획 첫 번째 장이 뭐예요? KTV지요, KTV 맞지요? KTV 내용 뭐예요? 수요자 중심 정책정보 제공이지요? 여러분이 썼어요. 제가 쓴 것 아니에요.

이래 놓고 자료화면 사용했다고 삭제 요청을 해요, 고소해요.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것만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삭제하고 없애요, 고소해요, 그리고 김건희 변호사가 KTV를 대신해서 고소를 해요. 이거 거의 국정농단 아니에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안산갑 양문석이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정하 간사님.

○박정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혹여 공인의 범주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을 지칭할 때는 그래도 자연인의 이름을 부르는 듯한 느낌은 이 자리에서는 없도록 위원장님이 좀 말씀을 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질의 내용 중에서도 과한 표현이 있거나 이러면 위원장님이 좀 제재해 주시는 게 우리 첫 업무보고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장님께 감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가능하면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지금 박정하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도 야당 간사로서 공감합니다. 하지만 위원이 말을 할 때 상대 위원께서 끼어드는 발언은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께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아마 취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얘기한 내용이 있지요? 그 중에 아마 블랙리스트 백서와 관련한 얘기를 하신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무책임하게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장에서 만들어진 백서고 대부분은 이런 소문이 있다더라, 누가 주장한다더라 이렇게 돼 있어 신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어떤 취지로 말씀하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대개 그런 백서가 만들어질 때는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에 대한 의견은 전혀 듣지도 않고, 거기에 반영이 된 게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주장만 실은 백서였고 실제로 그 백서에 제 이름도 정말 수십 차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뒤에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식의 표현이고 대부분이 일방적으로 자신들의 뜻에 맞는 그런 어떤 조사로 이루어진 백서였다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백서에 적시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블랙리스트에 연루되었던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적시된 혐의…… 그러면 결국 이거는 수사기관,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수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조사 결과와

이 백서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적시된 혐의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그것이 거의 광풍처럼 몰아쳤기 때문에 아마 그 외 다른 의견은 전혀 거기에 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블랙리스트라는 그 하나의 폐해 자체는 논란이 됐지만 그런 것 자체는 장관님으로서 어느 정도 인정할 수 없는, 이게 문제가 있는 행동이지만 그 혐의 자체를 그대로 사실관계로 인정하는 부분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작년에도 저희가 국정감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만약에 정말, 저는 이제 가능하면 이 상처를 딛고 좀 더 앞으로 발전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재조사가 필요하다면 제가 조사하겠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 무엇이 정당한지 이것을 제대로 한번 가려볼 필요는 있겠다 해서 그런 말씀은 드렸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후에 더 이상 진전된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가능하면 블랙리스트 문제는 더 이상 거론하지 않고 또 실제로 걸으로 드러난 것처럼 그렇게 대단하게 어느 한쪽이 손해를 입거나 어느 한쪽이 대단하게 해를 끼쳤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블랙리스트 조사 문제가 논란이 다시 된 게 아마 1차관님 임명 과정에서 다시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차관께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검찰 조사는 몇 번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두 번 받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특별검사하고 그다음에 일반 중앙지검, 두 차례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떤 식으로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1차 때는 제가 영국에서 문화원장으로 재직 중에 소환되어서 한 한 달 반 가까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조사가 마무리된 후에는 조사 내용에 대해서 소명이 다 되어서 참고인 조사로 마무리하고서 다시 제가 근무지로 복귀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조사는 지난 정부 도종환 장관께서 수사 의뢰를 하셔서 중앙지검의 2차 조사를 받았고 두 가지 혐의점이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는 무혐의가 되었고 또 하나는 사건으로 다루기에는 좀 경미한 사안이라서 입건유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래서 결국 불기소 처분을 받으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감사원 감사도 다시 받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감사원 감사도 2017년 상반기에 6개월 정도 받았는데 그때도 대부분 저에게 질의했던 부분들이 소명이 다 되어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정연욱 위원 수사 단계에서나 감사원 감사에서 어느 정도, 불기소 처분까지 받고 그런 상태에서 왜 다시 장관이, 당시 문화체육부장관이 중징계를 요청했습니까? 보통 그런

전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도 그 이유는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그 당시에 무혐의라서 중징계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납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거나 징계 요청이 됐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에 가서 여러 가지 소명을 했고 그 소명 결과에 대해서 최종적으로는 불문경고로 마무리가 된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블랙리스트라는 이 자체는 그 자체로만 따지면 문화예술계에 지대한 소위 나쁜 폐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분명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다만 이 부분이 혐의로 적시되려면 분명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명백한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전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러면 현 단계에서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그 부분을 다룰 수는 있어도 완전히 범죄인으로 낙인찍는 거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문제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정연욱 위원 이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관련 업무를 집행하시고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제가 이와 관련해서 지난 몇 년간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겪기도 했었지만 그건 뭐 제가 공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당연히 감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책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이러한 비극적이거나 여러 사람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제도를 만들고 그러한 정책을 이뤄 나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정연욱 위원 하나의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공과가 있을 수 있고 넘어야 될 여러 가지 상황도 있을 겁니다, 앞으로. 다만 이런 과정들이, 그러니까 짚어야 될 건 짚겠지만 과도하게 낙인을 찍는 효과로 번져서는 안 되는 것도 저희가 한번씩 되짚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장관님, 차관님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산청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한국 문화 발전에, 체육과 관광 발전에 일을 같이 해 나가시자는 저도 의지의, 각오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아까 장관님 말씀 주신 것 중에 이게 참 반문 안 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개인적 경험이기도 한데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에 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피해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아까 본인께서 제일 큰 피해자시더라고요 얘기를 하시는데, 고통스러우셨겠지요. 그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그 얘기를, 오늘의 장관님 말씀을 듣는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봅니다. 문화·체육·관광을 진흥하기 위한 책임자로 계신 장관님께서 그 표현 자체는 저는 과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영화감독이 하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근 20년을 어렵게어렵게 준비해서 입봉작을 냈고 그 입봉작이 대단히 히트를 쳤습니다. 그 해에 권위 있는 영화제에서 신인감독상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 감독이 그로부터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서 지금 십삼사 년이 지나갔는데 단 한 건의 영화를 제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감성이 그리고 자기 창작능력이 최대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친구가 40대 초반에 입봉을 했는데 지금 50대 중반이 돼 버렸어요. 그 친구가 이제는 40대 초반의 그 감각과 창작능력을 유지한다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친구에게, 그 감독님에게 날아간 십수 년의 세월은 누가 보상을 하지요?

블랙리스트에 해당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 감독은 분명하게 그 일로 인해서 십수 년을, 신인감독상까지 수상한 첫 작품 하나로 그런 촉망받던 감독이 그 이후로부터 십수 년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분들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우울증에 시달렸고 굉장히 큰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면서 평생을 살았고 다시 영화감독으로서 복귀하고 재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비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데 장관님께서 어찌면 본인이 블랙리스트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얘기 주신 것에 대해서 제가 듣기에 정말 민망했습니다. 한 말씀 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위원님, 그거는 제가 그런 피해자라는 입장이 아니고요. 실제로 이것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계속 발생한 일이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도 많이 잘렸고 저도 많이 배제됐고, 심지어는 이 자리에 오기 불과 1년 반 전에 외국서 공연하는 것도 잘려 본 사람입니다. 그것도……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역대 장관급 했던 사람이 외국서 뭘 한다는 것도 못 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그래서 더 얘기를 하고 싶지가 않거든요.

○이기현 위원 장관님, 그러면 블랙리스트로 인한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을 해 봤기 때문에……

○이기현 위원 그리고 그런 피해자들의 치유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장관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감독님도 나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만나서 정말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인사는 메시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특히 권력자가, 인사권자가 국민들에게 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겁니다. 저는 장미란 2차관님 임명됐을 때 상대 당의 대통령이었지만 약간 감동했어요,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 하고.

저는 인사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는데 블랙리스트 피해자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용호성 1차관께서 이번에 임명이 되셨습니다. 저는 이 피해자들이 느끼는 정서는 정말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지금까지 해 온 과정이나 이런 걸 봐서 아마 현장에서 조금 더 일로서 부딪히고 만나면 훨씬 더 이해하고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인사가 메시지고요. 피해자들은 이걸 본인들에 대한 조롱, 우롱, 모욕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장관님께서 해결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용 차관님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을 수도 있고, 제기됐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영화 ‘변호인’에 대해서 해외 영화제에 출품 배제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책임이 없으시다,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 건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감사원 감사 때에도 제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사례였고 왜 그게 거론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좀……

○이기현 위원 본인이 진술하신 내용을 보면 몰랐다, 기억이 없다, 그러다 나중에는 내 업무의 영역이 아니었다, 청와대 있을 때.

자, 그때가 2014년이지요? 그때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어떤 직위에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선임행정관 아니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2014년 초에 선임행정관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5명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서무 보시는 한 분 제외하고 나면 행정관은 2명, 선임행정관 1명, 비서관 1명이었을 겁니다. 지금도 문화체육비서관실이 큰 비서관실이 아닙니다.

선임행정관이 영화 업무는 내 영역이 아니다? 그 비서관실에서 하는 일이 문화체육관광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데 영화 사업, 영화와 관련된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당시에 업무영역의 구분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외에서 있는, 특히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민간 부문에서 영화제를 기획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의 프로그래밍까지 관여할 정도로 그렇게 제가 업무에 세세하게 관여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진술이 있었고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이 문화의 영역에서 하나인 영화라고 하는 한 파트가

내 영역이 아니더라고 얘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비서관 한 분을 보좌하는 선임행정관이 거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 그 업무 전체 총괄 아니에요, 선임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그때의 직제는 그거와 좀 달랐고요. 제가 당초에 들어갈 때 행정관으로 들어갔었기 때문에 행정관별로 해서 업무……

○이기현 위원 아니, 초에 선임행정관으로 승진을 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아니요.

○이기현 위원 13년도에 행정관 들어가셨고 14년도에 선임 하셨다면서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2013년도에 행정관으로 들어가서 1년 정도 일을 했어요, 1년 정도 후에 선임행정관으로 승진 발령이 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업무가 달라지는 않았습시다.

○이기현 위원 차관님 말씀 믿고 싶은데, 제가 청와대 5년 근무해 봤어요. 저도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다 해 봤는데 그런 작은 비서관실에서 내 업무 영역 밖의 일이어서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대답하시는, 그렇게 진술하시는 차관님의 진실성이 의심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그 얘기는, 청와대에 근무했던 그리고 그렇게 작은 비서관실에 근무했던 모든 분들은 다 이해할 겁니다.

지금이라도 상처받은 분들에게 저는 차관님께서, 물론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차관으로 임명했지만 본인이 용단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차관님 임명 자체가 블랙리스트 수천의 피해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처가 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어제가 맥추감사절이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교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장사가 안 되던…… 요새 경기가 어렵잖아요. 장사가 안 되던 민박집에 갑자기 손님이 예약을 하면서 20만 원을 보내 왔어요. 20만이 벌리니까 오랜만에 고기도 사 먹어 봐야겠다 해 가지고 20만 원을 고깃집에 가서 썼어요. 그런데 그 고깃집에서도 오랜만에 20만 원의 수익이 생기니까 옷도 좀 깨끗이 하고 정돈도 하고 싶어서 세탁소에 또 그 20만 원을 썼어요. 그리고 그 세탁소에서 오랜만에 장사가 되니까 그동안 음식점, 식당의 외상값도 갚고 하면서 20만 원을 썼어요. 그렇게 해서 또 음식점에서, 식당에서 20만 원이 벌리니까 본인이 과거에 빚을 지고 있었던, 외상을 하고 있었던 민박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민박집에 가서 다시 20만 원을 갚았어요.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이 민박집에 예약을 했던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이 20만 원을 돌려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 20만 원은 처음 원점으로 돌아갔는데 이 과정에서 경제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도 효과는 있었겠지요, 아무래도.

○조계원 위원 각 정육점이나 세탁소나 음식점이나 다 20만 원씩을 벌어서 외상도 갚고 해결도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조계원 위원 보니까 문체부에서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도 하였고 숙박 페스타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14만 1000명에게 149억 원을 지급해서 8.8배의 추가지출효과, 이른바 승수효과를 냈더라고요. 그리고 숙박 페스타도 3.9배인 1560억 원의 매출유발효과를 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지금 문체부의 휴가비 지원이나 여행 가는 달, 숙박 페스타 사업이나……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25만 원씩……

○조계원 위원 예,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똑같은 맥락의 승수효과로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썄요, 지금 저희들 사업하고는 약간 의미는 다르다고 보는데요. 저희들 경우는 여행 가는 달이나 근로자 지원금이나 이런 경우에는 가능한 자기들 수입에서 쓸 수 있는 한도에 우리가 조금 더 도와주는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글썄요, 그건 의미는 조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 현실에서 사실상 대기업의 낙수효과는 사라졌습니다. 현재 국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크고요.

정부에서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으로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법안에 융통성은 부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 군데에 지불했을 때 아까와 같은 다섯 단계 정도, 아니면 열 단계 정도 이렇게 거치면서 자금이 순환하고 돈이 돌면 경제가 활력을 받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돌면…… 소멸성 지역화폐, 카드형입니다. 투명하게 사용이 되고, 이걸 일정하게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다 남기게 돼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정부가 세금으로 아니면 소득세로 회수하는 돈도 많이 생기고 서민경제에서는 13조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투여했을 때 이게 50조가 넘게, 100조가 넘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 분야에서 지금 국민들에게 베풀 수 있는 청년 패스라든지 관광 쪽에 있어서의 여행 가는 달이라든지 또 기타 문화지원금 세제혜택 주는 거라든지 저희들 분야의 사업이나 이런 걸로는 훨씬 예산도 더 확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우리가 부처의 입장보다는 정부 전체의 입장이 필요한 거니까 오히려 기재부에서 좀 더 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저희들 쪽은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고 예산을 훨씬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 참석하시고 하시니까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문화비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혜택들을 많이 주고 있고,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문화비 연말 소득공제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것 보면……

자료 있나요?

저는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실제로 그 문화비를 다 못 쓰고 있습니다. 소득공제가 보통 300만 원까지 받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단순히 문화·예술·체육…… 체육은 없었는데 이번부터 다시 헬스클럽 가는 거라든지 수영장을 가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자료 한번 띄워 주실래요?

지금 보면 19세 이상 근로소득자 1000명, 등록업체 500개 대상으로 해서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의 인지도 및 효과 조사를 한 데이터가 있던데요. 그 데이터를 보면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화나 문화상품 구입비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비중이 높은데,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행, 숙박 그리고 체육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높은데 지금 현재 이걸 실시가 되고 있지 않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러니까 이걸 확대하려고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 확대하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왜냐하면 지금 문화비 소득공제가 다 안 돼서요, 다 못 쓰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래서 조금 더 폭을 넓혀 줘서 그것을 가능하면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소득공제의 폭을 여행, 숙박이나 체육으로 늘리면 일단 지방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고 국민건강 증진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확대했으면, 좀 과감하게 확대했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을 연말정산할 때, 지금 의료비 항목이 공제 항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비 공제 항목으로 이렇게 하면 국민들도 일목요연하게 이걸 보고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더 적극적으로 문화비 지출에 나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대리 박정하 의사진행발언이신가요?

○임오경 위원 예.

○위원장대리 박정하 말씀하세요.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언론진흥재단에 자료 요청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김효재 이사장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표본에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이유로 표본을 문제 삼아 언론사 순위를 문제 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개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로이터연구소는 웹사이트에 조사 방법론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파트너인 유고브(YouGov)는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고브는 표본이 국가적으로 대표할 수 있는 연령·성별·지역별로 할당해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온라인 여론조사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유고브 웹사이트에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론진흥재단은 한국의 조사에서 조사 방법론에 오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로이터의 명의로 혐의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김효재 이사장님, 시간 내에 준비가 가능하시겠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지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임오경 간사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임오경 간사님뿐만 아니라 저희 당 쪽에도 좀 제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임오경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지요.

○임오경 위원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장관님, 끊이지 않는 블랙리스트 피해자가 존재합니다.

장관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관련한 적도 전혀 없다, 오늘은 장관님도 피해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장관님도 모든 것에 잘렸다, 장관님을 포함한 블랙리스트로 상처를 받은 분들에게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만져 주신다라는 인상 깊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역대 한 상임위 장관을 두 번이나 하시는 분은 최초이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장관님께서 위기가 기회로 전환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기회에 제대로 보여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오늘 또 용호성 1차관께서도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장관님께서 더 이상……

저는 이게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해서 박근혜정부로 이어 오는 블랙리스트 존재로 인해서 상처받은 모든 분들에게 진짜 기회가 왔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계속해서 21대, 22대 끊이지 않고 지금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회가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이 기회를 제대로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현재, 물론 제가 7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마는 정책을 시행하는 거나 또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다 보시면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고 장관님도 상처를

받으셨다, 피해자라고 하시는데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지는 않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하지만 그 자리에서는 가능하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자리가 아닌 나가서는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 계실 때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님,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펴낸 뉴스 리포트 한국어판 보고서 왜 발간 안 하셨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은 작년에 임 위원님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삼으셨기 때문에 제가 그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그때가 제가 취임해서 얼마 안 됐을 때 거든요. 제가 그 자료를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우선 제일 눈에 띄는 것이 언론 신뢰도 조사였습니다.

언론 신뢰도를 조사기관에서 해서 지금 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겼는데요.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게 언론 신뢰도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핀란드가 나왔고요 그다음이 케냐와 나이지리아가 신뢰도가……

○임오경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발간을 안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이 자료가 신뢰……

○임오경 위원 일단 김효재 이사장님이 신뢰를 하고 안 하고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건 저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그리고 옥스퍼드 합작으로 다 이루어진 건데 이것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올해 몇 단계 떨어졌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몇 단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임오경 위원 모르시지요? 열 단계가 또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올해 매체 신뢰도 1위는 어디였나요? 어디였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그러니까 그게……

○임오경 위원 아니, 어디였나요?

지금 여기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간한…… 어디였나요, 대한민국?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MBC였습니다.

○임오경 위원 MBC였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러니까 그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임오경 위원 제가 볼 때는 언론자유지수 순위가 작년보다 열다섯 단계나 떨어지고 매체 신뢰도 1위가 여전히 MBC인 결과를 인정하기 싫은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임오경 위원 올해 안 내실 겁니까, 낼 겁니까, 이 발간?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이 보고……

○임오경 위원 낼 겁니까, 안 낼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이사장님, 그러니까 작년에 국감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기본적으로 이 연구소의 보고서가……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작년에 약속한 부분이 있는데 발간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10월 달에 해야 되는데요 그때 가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때 가서 판단을 하신다……

장관님께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 저에게 거짓말을 하시는 상황이 된 거예요. 아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국감에, 김효재 이사장님 그리고 장관님 취임하자마자 바로 국감에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질의를 했을 때 장관님이 저에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부분 부분 빼서 발간을 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다 기재해서 발간한다고 저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그때도 제가 발간이 되면 거기에 나온 내용은 빠지 않고 그대로 다 게재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올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디지털 뉴스 리포트의 한국어판 보고서를 아예 내지 않겠다라는 이런 말들도 들리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쎄요, 그건 언론재단에서 결정할 문제니까……

○임오경 위원 10월까지 시간이 있다고는 하는데 지금 답변 말씀을 들어 보면 내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립니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장관님을 무시하는 발언인가요, 아니면 장관님의 지시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이 지시한 건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발간을 하고 안 하고는 재단에서 결정을 할 일이고요. 그것이 발간되면 아마 빠지 않을 거고 발간을 안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임오경 위원 이것은 장관님이 지시를 한 건 아니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어떤 거를요?

○임오경 위원 이것 발간하지 말라라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아직 결정도 안 한 상태라고 말씀……

○임오경 위원 매년 정상적으로 발행되던 디지털 뉴스 리포트가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일부가 누락돼서 발간되더니 올해는 아예 발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장관님 그리고 김효재 이사장님, 이 표 한번 보시지요.

지금 PT 하나 띄워 주세요.

왜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언론지수가 떨어지는 겁니까? 보수정권은 뭐가 그리 당당하지 못해서 언론 통제를 하고 언론을 장악하려 하는지 언론지수가 보여 주고 있지 않나요? 이게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제 생각에는 언론을 누가 통제하거나 언론을 어떻게 하려고 한 적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발간을 못 해요? 발간하셔야지요, 그러면. 미운 MBC 1위로 책 나오는 것도 싫습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참 쪼잔해 보입니다. 당당하게 발간하십시오.

저는 어느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럴수록 더 당당하게 하셔야지 대통령 욕을 안 먹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행정부에서 이런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1분만 더 주십시오.

자꾸 행정부에서 이렇게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 때문에 머리 아파 죽겠는데 더 욕먹는 것 아닙니까. 감출 게 뭐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직 결정한 사항이 아니니까요, 좀 더……

○임오경 위원 답변을 들어 볼 때 안 한다라는 답변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누가 들어도? 긍정적인 답변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장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발간하십시오. 하셔야지만 대통령이 욕을 안 먹습니다. 이것 발간 안 하시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걸 알고 계시고, 역할을 해 주시고요.

김효재 이사장님, 꼭 발간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답변 들으셨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런 자료를 계속 내는 것이 과연 우리 언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능하다는 말을 더 듣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몇 번, 몇 차례 말하고 있습니까? 그냥 당당하게 발간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면 발간하면 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그런다라면 이해라도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 다 되어 있어요. 불용시킬 겁니까, 그것?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하여튼……

○임오경 위원 발간하세요.

○위원장대리 박정하 임오경 간사님 마무리되신 거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갑자기 사회자석으로 오는 바람에 제 자리 가서 몇 가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간사,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임오경 박정하 위원님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박정하 위원 원주갑의 박정하입니다.

장관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2008년부터 2013년 초까지 청와대 근무를 하면서 블랙리스트 건에 대해서 언론의 접점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는데, 장관님이 보시기에는 또다시 블랙리스트 얘기가 나오는데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그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서로 나름대로 진영 논리처럼 상대방에 대한 피해를 계속 입혀 온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치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어느 한쪽은 가해자인 것 같고 어느 한쪽은 피해자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양쪽에 피해자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는 거고요 또 한쪽은 끊임없이 그 주장을 하는 건데요. 이런 주장을 하는 밖의 시민단체들이 몇 단체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들도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하지 말고 좀 더 예술적으로 승화시킬 생각을 하고, 우리의 문화예술 자체가 이미 국제적인 수준에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서로 의견을 내서 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블랙리스트같이 똑같은 일이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믿어 주시고 정말 미래를 향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박정하 위원 블랙리스트라는 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저희가 볼 때는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라면서 거의 비슷한 개념을 가지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관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답변 중에 왜 특정 정권, 보수 정권이냐 진보정권이냐 이렇게 넘어가면서 유독 보수정권에서만 블랙리스트라는 것들이 회자되는지에 대한 답변도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하는 생각, 거기에 블랙리스트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체도 애매하고 유령 같은 존재라면 그냥 우리가 작위적으로 피해자라고 규정을 하면서 그 건에 대해서 더 이상 소모적으로 사회가 시끄러워지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문체부에도 감사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감사관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문체부 소속이세요 아니면 다른 데서 감사 업무를 하시다 오셨나요? 개방직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예.

○박정하 위원 마이크 좀 주세요.

일반적인 것 여쭙 테니까 편히 말씀 주세요.

지금 용 차관님 관련해서……

아, 감사 업무 몇 년이나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20년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20년,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예.

○박정하 위원 용 차관 관련해서 몇몇 의혹들이 있고, 용 차관님 임명에 관해서 야당 위원님들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특별검사의 수사 그다음에 검찰 수사 그다음에 감사원 조사 이런 일련의 과정이 쭉 나오면서 거기서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금 20년 이상 감사 업무를 해 보신 경력, 경험으로 비춰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혐의 없음으로 나올 수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감사건 수사건 간에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결과가 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감사나 수사 결과에서 실제적인 내용이 없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렇게 감사하시면 징계 주시는데 불문경고라는 게 어느 정도 수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불문경고는 징계의 종류가 아닙니다. 징계의 종류는 아니고 징계의 수준까지 나가지는 않지만 경고 또는 주의라는 의미에서…… 아까 불문, 그러니까 징계가 아닌 의미에서 불문이고요. 그래서 사실상 성과급이라든지 조금의 피해는 있습니다마는 징계의 종류는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KTV의 이 원장님 계시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박정하 위원 앞서 우리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 말씀 주실 때 대통령님 부부 관련해서 영상 쓰임과 관련해서 ‘저작권 위반 사례라고 판단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답변 주신 부분에. 그런데 저작권이 위반됐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지 좀 말씀 주시겠어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비록 KTV의 영상과 콘텐츠는 공공저작물이지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에 보면 본질적인 내용 등의 변경 금지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가 적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저작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박정하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에 의해서 이게 쓰여지면 안 된다고 판단을 했고 각각의 유튜버들한테 삭제 요청을 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맞습니다. 저희가 최근 3년간 한 20건 정도의 저작권 위반 사례를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들을 다 취했습니다. 대부분의 경미한 것들은 저희가 신고를 하면 그 신고를 받고 구글코리아에서 삭제를 하거나 또는 본인들이 삭제를 했는데 저희가 형사고소한 2건은 그 정도가 지극히 심대하여 형사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호성 차관님 질문 좀 드릴게요.

최초에 특별검찰로부터 수사를 받을 때 영국문화원장 재직 중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 혼자 가셨어요,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가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혼자 갔습니다.

○박정하 위원 혼자 부임해 계셨고.

다행히 그러면 같이 갔던 애들 교육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 되지는 않았겠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그게 아니고 영국에는 같이 갔었고요, 조사받으러 올 때는 혼자 왔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 조사받으러 들어오실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박정하 위원 영국문화원장으로 얼마나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한 2년 7~8개월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통상 가면 문화원장으로 얼마나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원래 3년 임기로 부임을 했는데 한 2년 5~6개월 됐을 때 조기 소환 관련 발표가 나 가지고 좀 일찍 들어오게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저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러면 애들이나 가족이나 생활하는 데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따랐겠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중간에 집을 빼는 바람에 호텔에서 몇 개월 정도 지냈었고요. 여러 가지 학업 문제라든가 좀 곤란을 겪긴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해서 돌아오셔서 근무지나 근무 형태나 이런 것들이 대강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 간단하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돌아오자마자 발령이 났다는 통보를 받았는데 발령 당일 날 다시 발령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고 그때부터 7개월 정도를 그냥 본부 대기로 업무에서 배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7개월 동안 그냥 뱅뱅 돌았던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그냥 집에서 대기를 했고 그다음에 근무를 한 5~6개월 정도 도서관에서 했는데 다시 근무에서 배제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어서 교육을 가게 됐습니다, 장기 교육을. 그런데 그 장기 교육은 보통 국장급 1년 차에 가는 교육인데, 제가 그 당시에 국장 7년 차였는데 갑자기 교육을 가라고 그래서 좀 당황스러웠는데 어쨌거나 다시 또 1년 정도 교육을 갔고 또 교육 갔다 와서 특정 보직에 예정되었다라고 통보를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며칠을 앞두고 다시 보직 발령이 취소됐으니깐 대기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또 한 5개월 정도 자택 대기를 하면서 업무로부터 배제가 되어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 2년 정도 정상적인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보충질의에서 하고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위원장대리 임오경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지금 KTV 사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네요. 20건이 아니고요 47건이라는 것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공저작물 이용 지침 맞나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양문석 위원 공공저작물 이용 지침……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입니다.

○양문석 위원 그게 모범에 있는……

○위원장대리 임오경 잠깐만요.

○양문석 위원 그 자료 좀 달라고 하려는 거예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자료 요청이지요?

들으셨지요?

○한국정책방송원장 이은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을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제가 아까 원래……

○위원장대리 임오경 자료제출인가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아까 추가질의할 때 제가 1분을 썼는데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다른 분들 모두 마이크 켜졌는데, 그래서 1분을 애당초 미리 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오전에……

○박정하 위원 저희 당에 양해를 구하시는 건가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지금 위원장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저희는 상관없습니다. 쓰세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괜찮으시겠습니까?

우리 박정하 간사님께서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셔서 1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용호성 차관에게 그때 했던 질문이 뭐냐면 2023년 8월 어느 부서 일했냐, 어느 직책 근무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문체부라고 어불성설한 엉뚱한 답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해외문화홍보원장으로 일했다고 해서…… 거짓 혹은 착오이시겠지요. 사실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일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잼버리 뒷수습을 위해 문화예술계 연결해 줬냐?’고 했더니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한 것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의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문체부가 여가부 하위조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렇지 않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문체부는 왜 있는 겁니까? 아까 장관의 말에 따르자면 문화예술체육인을 진흥하고 그들의 권리 및 이익을 향상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강유정 위원 그런데 이때 당시에 문체부 소속이라고 했고 관광산업정책관으로 일했는데 잼버리 뒤풀이에 문화예술인들 갖다 쓰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아까 직위에 관련해서 저도 약간 혼란이 좀 있었는데 잼버리 시기에는 해외문화홍보기획관이 맞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요, 그 대답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건 묻지 않았습니까.

제 시간 꺼 주세요.

그것 묻지 않았습니다. 아까 이미 답 나온 것 제가 정리한 거고요.

다시 물어볼게요.

문체부 소속인데 잼버리 뒤풀이에 문화예술인들 갖다 쓰신 것 맞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문체위 33년 공직자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 당시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 중의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용 차관 생각 물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를 이렇게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까, 문체부 소속인데? 케이팝 콘서트 위해서 방송사도 그리고 연예계도 일정에 없던 그날 출연 일정을 잡느라 온 언론이 난리가 났었지요. 게다가 상암구장 잔디가 엉망이 됐습니다. 축구경기가 그날 몇 개가 취소됐는지 모릅니다. 문체부 소속이라면 여가부 주관이었던 잼버리 그 뒷수습에 이렇게 많은 문화예술인…… 아까 우리나라의 문화예술이 굉장히, K-컬처가 힘을 가져서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갖다 쓰는데, 문체부 소속 공무원이면 오히려 이것 막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저는 오히려 문화예술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손해를 살펴볼게요. 프로축구 취소됐고 상암구장 잔디 훼손됐고 게다가 하이브는 포토카드를 기부했습니다. 이 기부라는 것 나중에 문제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이걸 거의 관제동원 수준이 아닐까 싶은데요.

다시 장관에게 묻겠습니다.

책임심의제, 책임심의관은 어떤 기준으로 뽑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일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원하는 것은 문화예술위원회 같으면 그 직원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심의를 하게 했으면 하는 걸 원했구요.

○강유정 위원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책임심의관이 공무원이라는 얘기인데 전문가입니까? 영화 전공한 분이 영진위 책임심의관 하십니까, 아니면 현역에서 한 10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영화인들이 낸 시나리오나 제작·기획 같은 거나 상영·배급 문제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무원으로 그 직에 오래 있던 분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에 20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그건 전문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국가인권위원회법만 하더라도 위원을 모으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요.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 부교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다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 없이 지금 책임심의관 하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년 이상이면 충분히 기준에……

○강유정 위원 공무원입니다. 제가 아까 뭐라고 물어봤냐 하면 전문가냐, 전문가면 전공을 하거나 현장 경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현장에 오신 분들이 지원금을 받으러 오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들은 끊임없이 현장과 소통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가장 잘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강유정 위원 소통한 게 아니라 전문가냐고 물었고요.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회의록이 하나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및 국제영화제 지원 심사 회의록인데 회의록 내용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사업요강상 10개 내외로 안내돼 있지만 10개를 선정해야 하나요?’라고 했더니 ‘11개 지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10개로 지원하겠다는 영진위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는 회의록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가이드라인 아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그건 영진위에서 결정한 거니까……

○강유정 위원 제가 아까 블랙리스트라는 게 지원에 대해서 배제할 수도 있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블랙리스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계속 피해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관 두 번 영전하시고, 게다가 차관으로도 영전이 되는데 뭐가 실질적 피해인지 모르겠고.

분명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데 전공자도 아니고 한편으로는 현장 경험자도 아니라 공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 책임심의관제, 다시 생각해 볼 여력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영진위나 문화예술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요 그건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

○강유정 위원 아니요, 저는 책임심의관을 묻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심의관 자체도 거기의 직원이 책임지고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했고, 그 직원이 힘들면 외부에서 차라리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하더라도 평생 심사만 할 수 있는 심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책임심의관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블랙리스트가 없어집니다, 말씀대로.

○강유정 위원 블랙리스트가 없어지려면 공무원을 오히려 배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공무원이 아니고요.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강유정 위원 공무직입니다. 지금 책임심의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영화진흥위원회는 민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유정 위원 민간위원회지만 거기서 계속 일을 하고 결국은 영화진흥위원회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거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유정 위원 그 위원들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심의관의 자체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제도로 하고 심의 가이드라인을 준다는 게 더 문제인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어떤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강유정 위원 제가 아까 방금 읽어 드렸지 않습니까? 숫자를 정하는데…… 그래서 영화제 숫자가 결론적으로 엄청 줄었습니다, 지원 숫자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아마 나쁜 의도로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서 세계 잼버리 이야기 나왔었는데 사실은 잼버리 장소로 부적합한 새만금을 전 정부 때 잼버리 장소로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됐지 않습니까? 굉장히 국제적으로 대망신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가 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어떻게 보면 아주 순발력 있게 대처해서 K-콘텐츠를 통해 그나마 그런 대망신을 어떻게 보면 조금은 완화시켰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문체부도 중앙부처의 한 부처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뭔가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방향이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대부분…… 아니,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하셨고요.

○**김승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는 국가의 세금을 쓰는 것은, 창작 부분은 간섭을 하지 않지만 나중에 그 돈이 정당하게 쓰여졌는가는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승수 위원** 당연하겠지요. 저도 예술에 대해서 예술이 정치 선전의 장이나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말 예술인들에게 창의적인 역량과 또 창의적인 지식, 창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이 그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지원을 하는 역할에 그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오늘 블랙리스트 또 그와 반대 화이트리스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문재인 정부에서 블랙리스트진상조사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이 공정하고 적정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그 당시에 있지를 않아서 그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사결과의 백서나 나중에 이렇게 들어 전달된 내용으로는 대부분 민간위원들이 그 조사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좀 과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 진상조사위 위원들이 대부분 좀 편향된 정치성향을 가진 그런 인사들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피해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6명 인사들 중에서 9명이나 됐고요. 피해당사자라고 하면서 그중의 2명은 박근혜정부 때 지원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집단소송 대리인으로 활동했던 변호사들 둘이 또 위원으로 참여를 했었고요.

전문위원 구성을 보면 더 편향적입니다. 민주노총, 민변, 참여연대, 경실련, 대부분 좌파 단체의 시민단체들이 참여를 했고, 이 사람들 자체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도 별도의 공고문이라든지 면접도 없이 전부 다 특별채용했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부에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그때는 아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내는 분이 없었을 겁니다.

○김승수 위원 자문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면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협의도 없었고 또 자문위원회가 할 수 없는 공공기관장에 대한 용퇴 권유라든지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 이것은 행정자문위원회법에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무소불위로 한 겁니다.

물론 블랙리스트로 피해 본 사람들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되고 또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렇게 점령군처럼 마치 완장 찬 것처럼, 또 자기들 편향적인 사람들로 이래 가지고 수십 명을 블랙리스트 피해자로 몰고 갔던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서도 억울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어떤 식으로든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블랙리스트를 이렇게 몰아치거나 또 한편으로 정치적인 그런 의도로 자기편만 챙기는 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저는 이번에 그런 부분은 확실하게 개혁을 하고 고치도록 그렇게 정리를 꼭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여러 가지 지역 문화행사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전주영화제, 국제영화제 여기에 선정된 상영작이라든지 지원된 작품들을 보면 정말 좀……

(영상자료를 보며)

‘노무현입니다’ 또 ‘천안함 프로젝트’, ‘그대가 조국’, ‘문재인입니다’, 부산영화제 ‘다이빙벨’, ‘소성리’—사드배치 반대하는 겁니다—거의 대부분 좌편향적인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 영화나 이런 데 지원이 되고 상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됐다는 겁니다.

장관님, 반대로 보수 쪽의 그런 소재를 가지고 상영된 영화, 선정된 영화 있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목적을 가진 영화는 없고요. 대부분 저런 영화들은 일반적으로 영화라고 보면 안 되시고요. 나름대로의 어떤 목적을 가진 것은 예술로 구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저는 어떤 내용이 됐든 예술적인 감동을 줘야 그게 예술로서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승수 위원 정치적인 풍자 충분히 가능합니다마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예술을 정치로 이용하는 그런 행태는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가 근절돼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강유정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강유정 위원님.

○강유정 위원 방금 ‘이런 작품들은 예술이 아니다. 영화가 아니다’ 그리고 ‘좌편향’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미……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것은…… 잠깐만요 잠깐만요, 강유정 위원님.

상대 위원님이 하신 것에 있어서는 다음에 추가질의 때……

○강유정 위원 아니, 질의에 대한 대답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문화부장관께서 예술이 아니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과 뭐가 다른니까, 지금? 예술이 아니라 이것은 편향된 이념적 작품이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장관님, 지금 강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있어서……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도 의사……

○위원장대리 임오경 예.

○박정하 위원 강유정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문제 삼는 건 아닌데 강유정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과는 관계가 먼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께 여쭙는 것이니까 보충질의시간에 필요하시면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장관께 답을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이 좀 감안해 주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강유정 위원님께서서는 추가질의 때 다시 한번 재질의를 해 주시고, 장관님, 지금 강유정 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이었지만 그래도 들으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장대리 임오경 그래서 또 답변하고 싶은 말씀 한번 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오해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저도 평생을 예술가로서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목적을 갖고 만든 그런 예술작품은 예술로서의 값어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일종의 선동이거나,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의 함의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30초만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임오경 내용이 어떤 건가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께서 장관님께 좀 다짐을 받아 주실 일이 있어서요. 1분만 주셔도 좋고요.

○위원장대리 임오경 하십시오, 30초.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장관님께 앞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까 봐 그래요. 그러니까 청와대 개방 2주년 행사로 했던 우크라이나 아동미술전 그것의 상세내역을 제가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장관님께, 나중에 제가 끼어들기라고 표현했고 예산을 갑자기 이렇게 하게 된 과정 이런 걸 지금 장관님이 잘 모르신다고 그래서 제가 자초지종을 알 수 있게 자료를 좀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하려고 그러합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장관님, 상세내역 자료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질의 시작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장관님, 저희 광화문 현판을 한글로 바꾸신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글로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 얘기를 여러 번 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원래 저렇게 한글로 돼 있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전에는 그랬지요.

○민형배 위원 저것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재청에서 만들었겠지요, 유산청에서.

○민형배 위원 박정희 대통령 친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것은 글씨체를 그걸 썼다는 거지요, 예전에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만드는 거야 당연히 문화재청에서 했겠지요, 당시 문화재청이고 지금은 유산청이지만.

그런데 저것을 지금 바꿨잖아요, 한자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한자로 바꾼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복원하면서……

○민형배 위원 그때 장관일 때 바꾸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제 때는……

○민형배 위원 아니, 계획은 그 전에 세웠는데 실행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에요, 저 있을 때는 아니었고요.

○민형배 위원 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지요.

○민형배 위원 청장님, 저것 저렇게 바뀌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이천……

○민형배 위원 저게 바람직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의 복원 원칙은 광화문이 콘크리트 건물로 되어 있던 걸 다시 1870년 흥선대원군 시절로 갈 때 그 복원의 원칙에 맞춰서, 고중에 맞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가능하면 원형 복원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지향이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화재 또는 유산을 보존하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기본 원칙은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역사적 장소성, 원형 보존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화재를 다루는 기본적인 전제잖아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민형배 위원 저게 특별히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 말씀이십니까?

○민형배 위원 예, 청장님 보시기에.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뭐 문제라기보다는 저희가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것을 심사하는 문화재위원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오랜 숙의와 검토 그리고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가유산청장님, 국가유산청의 입장은 뭡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까 말씀드린 저희 고증과 복원의 원칙은 가장 마지막 있을 때의 원형으로 살리는 게 저희 고증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관님, 그래도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저는요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

○민형배 위원 그걸 추진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또 한글학회에서 이미 몇 년 전부터……

○민형배 위원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글 현판으로 좀 바꿔 줬으면 하는 거거든요.

○민형배 위원 혹시라도 장관님이 내킨다고 해서 그냥 막 하시기 없기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절대 그렇게 안 하실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글 관계자들하고 여러 차례……

○민형배 위원 아니, 지금 국가유산청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저것은 기본적으로 원형 복원이 기본 원칙이고 또 어떤 공간에 관한 것은 역사적 장소성을 늘 고려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을 막 만들려고 논란을 일으켜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데 세종대왕 동상을 앞에다 모셔 놓고……

○민형배 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세종대왕 이전의 것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러면 그것은……

그냥 장관님이 한글로 바꾸고 싶어서 그러실 수는 있겠는데, 또는 그런 요청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것은 함부로 정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제가 바꾸자고 바뀌는 건 아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유산청은 유산청의 입장을 얘기하면 되고요. 제 입장에서 한글을 훨씬 더 보호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냥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결정은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김효재 이사장님, 마이크 좀 잡아 주십시오.

저 표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양문석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시던데 KBS 수신

료를 폐지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거기는 돈줄 중에 수신료를 하나 폐지했는데 MBC는 수신료 이런 게 없으니까 저렇게 정부광고를 그냥 아주 세게 줄이셨네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정부광고의 문제는요 저희 진흥재단에서 어디로 배분하거나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법에 의해서 광고주가 선정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재단이 정부광고에 왈가왈부할 계제는 전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런데요 그게 재단이나 정부의 아무, 지침까지는 아니더라도 의도 없이 저렇게 되겠습니까?

봐 보세요. KBS는 13.4%가 늘었고 SBS는 16.6% 늘었고 EBS는 14.6%가 늘었는데 MBC만 3.6%나 줄었어요, 정부광고가.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 이유 없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더 놀라운 것 있어요. MBN은 40.1%가 늘었어요. 채널A는 30.4%가 늘었어요. TV조선은 50.9%가 늘었어요. 왜 MBC만 이렇게 줄어듭니까? 이유가 뭘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그것은 광고주……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광고주가 알아서 했다 그 말의 이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이 정부광고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건 저희가 큰일 납니다. 저희들 입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민형배 위원** 아니, 정부부처들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 이런 때……

○**민형배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지금 저런 현상이 MBC에 대해서 편파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가 답변할 성격의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아니 언론진흥재단이니까, 재단은 편파적으로 보이세요, 공정하게 보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MBC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문제이지 그건 저희 언론재단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민형배 위원** 언론재단 입장에서 봤을 때 정부광고 집행이 저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게 편파적으로 보이세요, 공정하게 보이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요, 저희들은 그런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판단을 해 보시라고요. 정부의 일원이시잖아요, 지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것 판단하게 되면 제 정치적인, 저희들 조직의 정치적인 입장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민형배 위원** 이전에 계신 곳에서도 정치적인 입장을 계속 하셨잖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민 위원님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언론진흥재단은 그런

정치적인 입장을 가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위원장대리 임오경 김효재 이사장님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민형배 위원님께서도 다음 추가질의 때 보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민형배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좀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광고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정부광고는 정부, 저희들의 광고주는 대한민국 정부와 공공기관들입니다. 정부와 공공기관들이 대한민국 매체들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광고를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있는 이유는 그 매체와의 협상력을 높여 주고 그런 걸 도와주는 것이지 그 광고를 어디다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2022년도에 KBS에 집행된 정부광고 553억, MBC 448억, SBS 542억, JTBC 99억, MBN 75억, TV조선 79억, 이것은 혹시 정부광고가 정당하게 집행된 데이터라고 보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물론입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 정부와 정부기관이, 산하기관이 각 매체에다가 집행한 광고입니다. 따라서 그때에도……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실은 그 해당 회사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꼭 해야 될까 고민을 했었는데 질문을 하시니까 제가 여쭙보는데……

시청률이 저는 우리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BC의 광고를 올해는 왜 줄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22년 기준을 보면요 MBC의 시청률이 예를 들어서 1.6입니다. 그런데 광고가 448억이예요. TV조선의 시청률이 1.479입니다. 그러니까 약 1.5지요. 79억 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사실 과거에 지상파 방송사들이, TV 방송국에 지출하는 정부광고를 좀 너무 편향적으로 지상파 TV에 집행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종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실제로. 종편의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에 정부광고가 기대할 수 있는 광고 효과 역시 상당히 큼니다. 특히 지금 문제 제기하시는 프라임 타임 시간대의 시청률을 보면 제가 있었을 때도 TV조선이 MBC를 능가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광고액이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것 이걸 사실은 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지상파 광고에 대한 과거부터의 오랜 관행이었고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들이 미세조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체부장관님께 좀 여쭙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신동욱 위원 용호성 1차관의 임명에 대해서 문화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어떤 단체들이 반발하시는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블랙리스트, 예전에 많이 그런 운동을 했던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몇 단체가 됩니다.

○신동욱 위원 저는 사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의 반발과 그분들의 마음속 응어리 이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우리 사회가 좀 포용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도 정말로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의 실존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 논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같이 함께 가는 것도 우리 문화부의 큰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제가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장관님은 블랙리스트라는 게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근무할 때 말씀드린 겁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실 다양한 형태의 일종의 차별적 예술인 기용이라든지 또 방송인 기용이라든지 또 제가 있었던 앵커들의 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차별적 기용이 많았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저는 없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논쟁이, 저는 이 블랙리스트라는 말씀을 자꾸 하셔서 이번 논쟁을 정치적 논쟁으로 끌고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으로 없애야 될 그런 일들에 대한, 저는 좀 저해되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해서 우려스러워서 짤막하게 장관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사실 이런 얘기를 저도 자꾸 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저도 예전에 제가 6년 동안이나 한 ‘역사스페셜’이라는 KBS 프로그램을 하루아침에 잘렸고요, 그것도 전혀 예고된 통지도 없었고. 또 심지어 저는 10년간을 제가 작품활동 하거나 밖에서, 공직을 하지 않는 그 10년간 정부의 아무런 지원을 받은 적도 없고 받지도 못했습니다. 물론 저와 관계되어 있는 그나마 몇 개 단체들이 지원 신청을 해도 다 떨어졌지요.

○신동욱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것 외에 말씀드리자면, 세세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한이 없지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감내한 겁니다. 당연히 잘하기를 바라고……

○신동욱 위원 혹시 블랙리스트는 아니더라도 문제인 정부 당시에 있었던 이런 편파적 지원이라든지 이를테면 편파적인 예술인 기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라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사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의견 개진을 많이 해 주셔서 꼭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제가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은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 양문석입니다.

박정하 간사께서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해서 저도 부드럽게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장관님, 아까 신동욱 위원 말씀하신 게 진짜 맞아요. 시청률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지요.

○양문석 위원 0.7이 나오는 채널에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0.27 나오는 채널에 광고를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무래도 광고주 입장이라면 시청률이 더 나오는 쪽에 당연히 광고를 하지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0.7이 나오는 매체와 0.27 나오는 매체에 정부광고를 줘야 되는데 문화부는 0.7이 나오는 데 안 주고 0.27 나오는 데 줬어요. 정상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가요?

○양문석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화부의 정부광고가 그런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양문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부의 23년 정부광고 집행액이 총 43억입니다. 그런데 MBC가 21년부터 23년까지 수도권 연도별 주요 방송 시청률 0.723이 나왔고요 그리고 TV조선이 0.272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화부는 43억 중에 무려 10억을 TV조선에 줍니다.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 아마 시청률……

○양문석 위원 아니아니, 제가 지금 문화부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갖고 이야기를 하니 데이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의심 안 합니다.

○양문석 위원 전제하지 마시고, 편견 가지지 마시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시청률이 좋은 데에 주는 게 당연히 광고의 효과는 더 있는 거지요.

○양문석 위원 그러면 문화부 정부광고는 누가 결정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것은, 저는 이런 부분이……

○양문석 위원 장관님이 지시한 적 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없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한 적은 없는 데……

○양문석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누가 지시해, 누가 TV조선에 문화부 광고 43억 중에 10억을 배정했는지 정확하게 그 현황과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개 프로그램 따라가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아마 TV조선에 더 갔다면 트로트 때문에 그럴 겁니다.

○양문석 위원 TV조선 트로트를 갖다가, 청년정책 공모전을 트로트 프로그램에다가 광

고를 붙이나요?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시청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거기로 많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 TV조선에 간 게, 지금 장관님 이야기가 얼마나 잘못됐냐면 트로트 때문에 갔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첨단산업 글로벌 인재학부, 대한민국 청년정책 공모전 그다음에 부산엑스포 이런 광고를 갖다가 문화부가 43억 중에 무려 10억을 TV조선에 줬다는 겁니다. 잘못된 광고 집행이지요.

이게 지금 문화부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MBC 하나도 안 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나도 안 줬다고요?

○양문석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럴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양문석 위원 0.272밖에 안 되는 TV조선에는 10억을 쏟아 밀어줬는데 0.723 나오는 MBC한테는 광고를 하나도 안 줬어요, 작년에.

이게 정상입니까, 아님니까? 정상이다, 아니다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썽요, 정상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이런 거는……

○양문석 위원 비정상이잖아요. 장관님께서 정말 합리적으로 잘 대답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깔끔하게 ‘비정상이다, 시정하겠다’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들여다봐도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신동욱 위원님 아주 예리하게 이야기했는데 SBS는 12억 주다가 5억밖에 안 줘요, SBS는. MBC는 9억 8000 주다가 0원 줬어요. TV조선이 뭐라고 7억 2000 하다가 10억을 한꺼번에 밀어줍니까, 7억 주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은 김효재 원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원장님, 아까 우리, 전 세계적으로 3대 뉴스통신사를 어디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3대 뉴스통신사를 어디 어디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 세계요?

○양문석 위원 예.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세계 3대 뉴스통신사, UPI, 로이터 뭐 이런 곳들이 있지요.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AP.

○양문석 위원 AP.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들어가지요, 로이터?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양문석 위원 아까 로이터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로이터 통신의 부설기관인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낸 자료를 왜 번역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확률표본과 비확률표본 표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게요.

성별이나 연령대별로 일정한 수의 표본을 선택하는 경우를 할당표본추출이라고 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거는 비할당표본추출이에요, 할당표본추출이에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할당표본추출이지요.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잘 모르는 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비확률표본이란 말이에요, 할당표본추출은. 잘 모르면서, 통계를 잘 모르면서, 통계의 의미도 잘 모르면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로이터저널리즘……

○양문석 위원 두 번째요, 이 순위는 비확률표본……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로이터저널리즘 표본……

○양문석 위원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는 순위를 매기지 않았어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니……

○양문석 위원 앞서 말씀하실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추세를 보기 때문에 순위를 매겨서는 안 되는데 비확률표본 표집’, 제가 발음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비확률표본 표집에 관한 추세를 보는 거지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다’……

순위를 매기지 않았어요. 그냥 TV조선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KBS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MBC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냐 하면서 채널 브랜드별로 하나하나 물었던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런데 무슨 말도 안 되게 ‘비확률표본 표집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데이터에 대해서 신뢰가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걸 다 번역을……

이사장이 번역을 결정합니까? 그건 도대체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사장이 결정하는 거예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제가 결정하는 겁니다.

○양문석 위원 이사장은 방금 이야기했었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제가 결정합니다.

○양문석 위원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위원님 이야기에 대답할 수 없습니다’고 하면서 정치적 중립인 것처럼 하면서, MBC가 1등 하고 TV조선이 꼴찌 하니 번역 안 했다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 정치적 의도를 고스란히 노골적으

로 표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갑자기 정치 중립적인 체 말씀하는 게 가증스럽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확률표본 표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세상을 속이려고 그러니까?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양문석 위원 장관님이 혹시 임명하셨습니까, 저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임명은 제가 했지요.

○양문석 위원 김효재 이사장이 조선일보 출신이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사회부, 문화부, 편집부국장까지요.

조선일보가 꼴찌 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MBC보다 훨씬 못 나오니까 번역 안 한 거 많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위원장 전재수 자, 양문석 위원님.

○양문석 위원 확률적이지니 비확률적이지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을 속이려고 그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건 제 개인의……

○양문석 위원 아실만한 분이, 기자 출신이 사실을 이야기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건 제 개인의 이력이고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결정은 그런 이력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너무 조선일보스럽다라는 거예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고.

제가 가급적이면 충분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은 의사진행발언……

○신동욱 위원 양 위원님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요. 그 표현 중에……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제가 장관님하고……

○신동욱 위원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위원들끼리……

○위원장 전재수 일단 우리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이야기 들어보도록……

○신동욱 위원 지금 이 자리에 또 많은 언론인 분들이 와 계시는데 특정 언론을 막 비하하는 표현을 쓰시거나 그거는 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디스럽다, 어디스럽다…… 물론 제가 왜 그것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러면 그건 뭐 별개입니다만 적어도 발언을, 정제된 발언을 하시게 말씀을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양문석 위원 지적 고맙고요, 흥분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장관님하고 할 때 얼마만큼 부드러운지, 잘 대화체로 하는지 보여 드렸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고 그다음에 진짜 흑세무민하는 김효재 이사장에 대해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는 화를 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정 언론 비하, 정말 MBC에 대해서 국힘당 분들도 그렇고 정부 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MBC를 비하했는데 그 수백 개의 비하 중에 달랑 양문석 하나가 ‘조선일보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듣기 싫으시면 균형을 좀 맞추자. 그러면 제가 한 수백 개 할 동안까지만 좀 참아 주셨다가 수백 개 대 수백 개, MBC와 조선일보 균형이 맞춰질 때 그때 안 할게요.

○**신동욱 위원** 이 자리에서 수백 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됐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신문법 제6조제3항은 ‘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신문의 편집인은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역시 2021년에 기사형 광고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설령 유료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하더라도 언론 보도를 금전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이상 부정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료 화면 보겠습니다. 부산국제엑스포 관련 중앙일보 건입니다.

어떻게 보이십니까, 기사같이 생겼지요?

그런데 이 칼럼은 기사가 아니고 부산시가 광고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기사형 광고를 피하기 위해서 지면광고에다가 협찬 기사를 얹어준 형태입니다. 심지어 해당 칼럼 작성자는 어디에 실릴지도 모른 채 컨설팅 회사에 원고만 보냈다고 합니다. 컨설팅 업체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기고하고 수수료를 받았습니니다. 중앙일보에 실린다는 것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다음 자료 화면은요 의원실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문서입니다.

23년 3월 16일 자 작성된 ‘PR프로그램 활용 홍보계획’이라는 제목 문서인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부산시가 기획기사 연재를 위해서 총 8800만 원을 소요 예산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후 부산시 문서들을 더 살펴보면요 지출 명목으로 ‘협찬 기사 게재 및 전면광고’라고 명시했고 광고료 집행을 증빙하는 검수 증빙 자료에 동아일보 기사 1건, 한국경제 기사 1건, 중앙일보 칼럼 1건을 지면광고와 함께 포함해 났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3개 기사에는 모두 1억 3200만 원이 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집행이 되었고요. 동아일보 4400만 원, 중앙일보 5500만 원, 한국경제 3300만 원입니다. 언론진흥재단에 제출한 증빙 자료에는 해당 기사는 없고 광고 내용만 확인된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는 객관적 사실을 담아야 합니다. 금전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사처럼 보이는 광고 집행으로 국민들이 실제로 부산엑스포가 유치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더군다나 국민 혈세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바로 대국민 사기극 아니겠습니까?

장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가짜뉴스 문제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필요 시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손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재원 위원** 부산시가 엑스포 홍보 예산 집행하면서 일부 신문사에 돈 주고 기획기사와 칼럼을 게재하도록 하는 등 부산시와 언론사 간 기사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던 것인

데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이건 언론사의 윤리적인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단순히, 저도 부산에서 어떻게 이런 기사를 했는지, 지금 우리 위원님 이것 보여 주셔서 처음 봤는데 하여간 좀 따져봐야 되겠네요, 정부광고법이나 이런 것을 위반한 그런 일인지 아닌지는.

그런데 법으로 따지기 직전에 이런 문제는 언론사 자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광고성 기획 기사를 쓴다거나 이런 문제는 언론사들이 좀 미리 정리를 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재원 위원 이게 모든 원인이 있는데요, 2009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 신문법 개정으로 기사형 광고 과태료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 그때 주무부처 문체부장관이신 분이 장관님이셨습니다. 그 이후로 위법적 기사형 광고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기사형 광고가 부정확한 청탁이라고 하고 저는 이런 끼워팔기 뒷광고들이 바로 사라져야 할 그런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원 위원 입법조사처도 22대 국회 과제로 처벌 규정을 신설해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문체부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24년 정부 발의 법안에 신문법 관련 개정 논의가 한 개도 없습니다.

장관, 이 문제 해결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해결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문제가 계속된다면, 그런데 이건 어느 일개 한 언론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언론사 자체의, 계속 말씀드리지만 윤리적인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또 판단을 잘하셔야 되겠지요.

○김재원 위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제출받은 부산엑스포 정부광고 집행 액수가 477억입니다. 정부와 언론이 이렇게 일하고 있었다 이런 게 국민한테 드러나면 어느 국민이 정부하고 언론을 믿겠습니까? 세금 내고 싶겠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기사 끼워팔기, 뒷거래해 놓고 참패한 게 부산엑스포 아닙니까.

이번 부산엑스포 기사 뒷거래에 대해서 한국언론재단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주무부처와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의원실에 보내 왔습니다. 정부광고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 공론장을 심각하게 훼손한 부산시 그리고 신문사의 위법한 금전거래 실태를 조사해서 그 내역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정부 차원에서 기사형 광고 근절을 위한 노력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도 입법 통해서 기사형 광고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4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최응천 국가유산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 제가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7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인도 뉴델리에서 제46차 세계유산심의위원회가 열리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여기에 일본의 사도 광산이 등재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면 일본이 근대, 우리 강제동원의 역사가 포함됐던 근대시대를 제외하고 에도시대로만 한정해서 하는 꿈수로 이걸 지금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이코모스가 일본에게, 또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시기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는 안을 가지고 한번 해 보라……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런 권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코모스의 그런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이번 46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이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확률이 높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등재 여부 결정 방식은 우선 위원국 만장일치로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투표로다가 결정되기도 하고—다수 득표에 의해서—그래서 저희들이 예상하기는 현재는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게 등재가 된다면 지난번 2015년 군함도의 약속 불이행 등재 이런 것까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굉장히 폭발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문제에 아주 능동적이고 정말 그런 대응을 잘 하지 못한 유산청, 외교부 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국가유산청은 외교부가 주관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계기관 협의회 참여를 통해서 서로 입장들을 조율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다행스러운 게 2023년에 대한민국이 세계유산심의위원회 위원국이 되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랑스 파리에 대사가 파견돼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 대사가 회의에 참석을 해서 과연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에 어떤 눈치를 보는 외교부가 이 세계유산대사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강력한 반대의 의견을 개진하라고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초미의 관심인데 혹시 들은 거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제가 대사님하고 직접 통화는 안 했습니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그렇게 나약하게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작년에 제가 직접 유네스코에 방문했을 때도 이러한 문제들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사도 광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함도 이후에, 메이지시대 그 등재 이후로 저희가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다만 이것이 저희들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교부랑 관련 단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유네스코 한국 대사님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산청장의 입장은 제가 믿고 인정을 합니다. 당연히 그러셔야 되겠지요. 그러나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기조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우리나라 외교부가 과연 그 대사를 통해서 유산심의위원회에서 강력한 반대의 뜻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반대를 하는 것보다는 저희의 권고가 받아들여지기를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에도시대를 포함하는 전체 역사를 설명하고 유적지 내에 갇출 것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저희가 촉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 가지 제재 조건을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요.

유산청장 혹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한 상임위원에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강제노역을 위안부의 문제처럼 존엄한 인권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더니 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본인에게 뭐라고 답변을 보내 왔냐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에 관한 개인적 견해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게 도대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 할 이야기입니까? 이런 어떤 종합적인 발언들이 일본의 태도나 세계유산위원회나 등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이 발언 확인을 못 하셨다면 유산청장이 외교부와 협의해서 이 상임위원의 이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국가의, 정부의 입장이라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유산청장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니 믿겠습니다만 이 결과를 국민들은 정말 민감하게 지켜볼 것이고 이 문제가 결과에 따라서 큰 후폭풍에 휘말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간이 얼마 없지만 더욱더 가열찬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제 마이크에 불 들어오네요.

김효재 원장님, 아까 옥스퍼드 대학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발표한 국가 언론

신뢰도에서 핀란드가 1등, 케냐가 2등, 나이지리아가 3등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게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성을 낮추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이거 하나만으로 그 연구소의 신뢰성을 못 믿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찾아봤더니……

○이기현 위원 원장님, 그 나라 국민들이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런데 핀란드가 1등 하는 거는 이상하지 않은데 케냐, 나이지리아가 그 나라, 자기 국가의 언론들을 평가하는 것,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2등, 3등이 나왔다 이래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에 의문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케냐나 나이지리아는 국경 없는 기자회견에서 언론자유지수가 100등 저 바깥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상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 굉장히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거로 이런 조사를 하는가 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 방법론에 나온 게 아까 샘플링을 얘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뭐라 그랬냐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기현 위원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이기현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저는 다만 핀란드 다음 순위가 케냐, 나이지리아가 되는 것이 그 나라 국민들의 판단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조사가 이 조사를 기록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통계라는 것은 흐름을 바라보는, 그래서 매년 그 통계지표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작년에는 이 순위를 발표하지 않아서 논란이 됐고 국감장에서 지적을 받으셨고 그 당시에 유인촌 장관께서는 별일 아니다, 내년에는 순위 넣어서 발표하겠다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올해는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10월 달 가서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께서 말씀하신 통계의 필요, 통계라는 것은 추세를 바라본다는 것일 텐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이번에 꼭 10월 달에 발간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뒤에 감사관님 나와 계시지요? 다시 한번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아까 불문경고는 징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예.

○이기현 위원 자, 그리고 불문하고 경고는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예.

○이기현 위원 이래서 아까 수당이라든지 상여금이라든지 몇 가지에서는 불이익이 있다고 얘기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예.

○이기현 위원 그러면 불문경고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문경고를 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다만 징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문경고 또는 주

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기현 위원 용호성 차관님에 대한 불문경고가 언제 결정 났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감사관 구경렬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이기현 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결정이 난 거지요? 아닌가요?

용 차관님 어떻게 되나요, 불문경고가 그 시점이?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2022년 하반기였습니다.

○이기현 위원 2022년 하반기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이기현 위원 용호성 차관님 오늘 나와서 고초 겪고 계신다고 본인은 생각하실 텐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블랙리스트에 대한 피해자는 엄연히 존재합니다.

공직에 있다라는 무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저도 어쭙잖게 정당 생활을 하면서 10년을 공직에 있었습니다. 국회직으로 5년 있었고 또 행정부에서 5년을 일해 봤는데 그 무게라는 것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피해를 보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그 일을 담당했던 모든 공직자들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 나의 법률적 잘못에 대한 평가 이전에, 그 법률적 잘못을 평가하는 검찰이라든지 사법부의 판단이 있겠습니까만 그것을 떠나서 공직자는 국민들의 고통에 가장 민감하게 체감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공직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용호성 차관님, 상처받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일을 담당했던 공직자로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셨지요, 청와대에도 계셨고. 그분들에게 사과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제가 그 당시에 어떠한 역할을 했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맥락이 있었던 간에 그 일로 인해서 상처받은 분들이 있고 피해받은 분들이 있다면 어쨌거나 그 시기에 문화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로서 저는 당연히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자숙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관님, 아까 소득비 공제 관련해서 지금은 연소득 7000만 원 이하로 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거 확대하실 의향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거는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차피 300만 원 제한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충분히 확대할 여력이, 확대해도 괜찮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제율도 현재 30%인데 이것도 더 높일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이거는 예산부처하고 조금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공제율이 30%인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거보다는 좀 높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좀 높고 범위가 좀 더 넓어지면 아무래도 혜택받는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민건강 증진 효과가 있으니까 확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한번 의견을 저희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우리 언론재단 이사장님, 아직도 디지털 뉴스 리포트 발간 계획을 확정을…… 발간 아직 안 됐습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요 2021년에……

○조계원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조계원 위원 한국 언론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추락한 것도 문제지만 발간 예산까지 편성해 놓고 뭐가 그리 창피한 겁니까? 아니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싶으십니까?

번역본 발행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고요. 조선왕조실록이 왜 위대한 세계유산이 된지 아십니까? 왕의 치부까지도 가감 없이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당장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정부광고 효율성 및 공익성 향상을 위해서 관리 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매체별 연간 정부광고비를 보면요. 지금 TV조선의 경우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79억 7200만 원에서 무려 2배인 160억 63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시청률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 시청률이 더 떨어졌어요. 다른 채널, 올라간 채널은 오히려 광고료가 더 삭감되는 반면에 TV조선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저는 이 부분은 정부에서 거의 사실은 손을 안 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전에 ABC협회도 2008년도에 거의 활성화를 시켰고요. 그런데 그 부수 공사 문제가 좀 잘못되면서 열독률로 중간에 바꿨고요. 그런데 아마 그 열독률 문제도 방법을 바꾸면서 또 문제가 돼서 아마 이제 정부에서 더 이상 광고 문제는 손을 대지 말고 자율적으로 하도록 하자 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한번 잘 들여다보고……

○조계원 위원 예, 깊이 들여다봐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언론재단 이사장님도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정책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책에 관여라는 말씀을 잘……

○조계원 위원 정책에, 정부 정책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글썸, 따로 관여한 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국가유산청의 전신인 문화재청에서 지난 2009년부터 13년까지 보스턴미술관과 사리와 사리구의 동시 반환 협상을 진행을 했었고, 이미 그때도 사리에 대해서는 바로 반환이 가능하지만 사리구까지 함께 반환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반환을 미루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미룬 정도가 아니라 협상이 결렬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3년.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동시 반환의 정책이 그러면 바뀌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바뀐다기보다는 사리……

○**조계원 위원** 문화재청의 정책이 바뀐 겁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사리라는 거와 사리구는 어차피 그것이 일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리는 성물이고, 그러니까 종교단체에서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리구에 대한 반환이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당연히 사리구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들도 사리구도 반드시 반환받는 대상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때 당시에 문화재청의 정책적 입장은 동시 반환 아니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거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말 한마디로 해 가지고 사리구 반환은 포기하고, 사실상 포기하고 사리만 반환한 게 잘한 정책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정책을 바꿀 수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닙니다. 사리 반환을 포기한 게 전혀 아니고요. 사리는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 아니라 종단 입장에서 사리가 왔으면 좋겠다는 그 요구가 지속적인 것을 보스턴미술관에 요구를 했고 보스턴미술관이 그거를 국가의 정부기관이 찬성을 하면 같이 저쪽 의회에서도 협의를 하겠다 이런 연락이 왔기 때문에 한 거고요. 11년 동안 정채된 것이 다시 이루어진 건 사실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게 왜 김건희 여사의 치적처럼 보도가 되고 그걸 미화하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미화가 아니라 그동안 11년 동안……

○**조계원 위원** 이미 2009년에서부터 13년까지 정부 정책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저쪽 보스턴미술관에서도 이미 사리 반환에 대해서는 동의한 거 아닙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아니, 그건 위원님이 아시겠지만 동의라는 건 아니고요. 사리만 반환할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개를 동시 반환하면 안 된다고 협상이 결렬된 거를 11년 만에 다시 재기된 거는 김건희 여사님이 미국에 가서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건의를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필두로 해서 다시 협상을 재기한 것이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정책적으로 변환이 된 게 맞냐 이거죠.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정책 변환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일괄적으로, 사리와 사리구는 분리가 이루어진 건 맞습니다만 처음부터 협상은 같이하는 게 원칙이었습니 다만 지금은 사리라도 먼저 오고, 사리구 반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저희가 대여라도

해서 계속 물고를 틀 예정으로 있고 그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임오경 간사님께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오전의 업무보고에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봤더니 남북관계에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에 경기도 일대에 6·25 전쟁 주요 격전지와 기념시설을 자전거로 순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전적지 순례길을……

○임오경 위원 자전거로 순례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관광 상품으로 만들고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임오경 위원 문체부가 보도자료까지 뿌려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안보관광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혹시 6·25 전쟁 격전지를 돌아보며 무슨 생각이 들던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많이 생각이 나지요.

○임오경 위원 안보관광을 자원화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안보가 관광 자원화할 만큼 녹록지가 많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만……

○임오경 위원 9·19 군사합의로 멈췄던 서북도서 해상사격 훈련이 근 7년 만에 재개되었고 북한군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고 오물풍선이 우리 대한민국 하늘을, 지역을 다 떠돌고 있습니다. 저도 밖에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TV 켜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중 일부도 불안감을 나타낸다는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7년 사드와 북한 미사일 후폭풍으로 한국 방문 외국인이 월 170만 명에서 한 100만 명 이하로 감소했다고 당시 관광공사가 발표한 바도 있습니다.

2018년 2월에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아이스하키 단일팀 북한 응원단의 남한 방문이 2개월 뒤 4·27 판문점선언으로 이어진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영국 BBC News 코리아 기사에 의하면 ‘남북한 스포츠 교류는 상호 신뢰와 친선, 적대감 해소 등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전경련도 남북 경제협력 경제성장률 증대 효과를 매년 0.81%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체부의 장점이 뭔지 아십니까?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정치 상황이야 어떻든 이런 문화·예술·체육의 교류는 계속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남북관계가 단절되고 어려울 때마다 항상 남북관계의 벽을 허물어 준 상임위가 문체부입니다. 문화·예술·스포츠가 항상 그 역할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업무보고 책자에 전혀 남북관계에 관련된 사업 내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을 했습니다.

다시 장관님께서, 유일하게 갖고 있는 우리 문체부의 장점이 지금 전혀 업무보고에 들

어가 있지 않은데 중점과제로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대안을 좀 마련해 주셔서 다시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뿐만이 아니라 전체 위원들에게 좀 보고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의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임오경 위원 저는 2030년 서울올림픽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어려울수록 올림픽 공동 개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이, 이것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서 국민이 안전하고 전쟁 없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지금 우리 국민은 진짜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불안감 속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장관님께서 이 대안을 마련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이 한 18일 정도 남아 있지요. 소관기관하고 난데없는 예산권 싸움 하고 게실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권 싸움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 문제는 현재 그동안에 체육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나름대로 간담회의 결과로 여러 의견이 나온 거거든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 장관님!

이 간담회…… 그러면 과거를 한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다라하면 이미 2016년 박근혜정부 시절 보조금을 종목단체로 직접 교부한 적이 있었지만 이게 행정 비효율성이 초래되고 사업 승인 지연으로 인해서 정산 지체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다시 이것을 대한체육회에 재교부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말씀 나온 것과 왜 과거를 보지 않습니까?

과거에 이런 일이 있어서, 저희가 박근혜정부 시절에 보조금을 종목단체에 직접 교부했지만 또 문제가 돼서 다시 원상 복귀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올림픽 30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장관님께서 기자들 앞에서 그것을 그렇게 발표하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문제는 다 상대적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더 이상 체육에 대한 어떤 의견도 지금 내지 않을 생각이구요.

○임오경 위원 장관님, 말씀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 말 안 하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올림픽 끝난 이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당연히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게 어른 아닙니까, 그게 리더십이고.

그런데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이 디데이 30일에 한 발언을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님이 한 템포 늦췄으면 문제가 없었지요. 그런데 거기다 맞대응하시는 장관님의 모습을 보고 더 큰 실망을 했더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 어려운 폭염 속에서도 4년을 준비한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힘은 되어 주지 못할망정 어른들이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나 보여 드려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싸운다는 표현은 조금은 아닌 것 같고요.

○임오경 위원 싸움하셨지요. 어떻게 이걸 피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수들에게 어쨌든 힘이 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선수들한테도 너무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라고 열심히 응원하고 있고 또 이번 에 좋은 성과를 내도록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오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의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확인하시고 심도 있는 검토를 다시 해 주세요. 말로 먼저 언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연구 중입니다.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체육을 살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원주갑 출신의 박정하입니다.

아까 주질의 때 하던 것 용 차관께 몇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공무원 임용된 게 몇 년도 임용되었어요, 공무원 최초 임용?

용 차관님.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1992년이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92년. 그러면 한 30년 넘으셨네요, 벌써?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박정하 위원 소위 말하는 당시 2018년 블랙리스트 건으로 해서, 아까 쪽 말씀 주셨는데 근무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비정상적으로 돌아갔던 게 몇 년 정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2017년에 조사받은 것부터 시작하면 한 6년 이상……

○박정하 위원 6년, 7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박정하 위원 총 한 30년 중에 6년, 7년은 적지 않은 시기네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박정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의 질문에 당연히 블랙리스트로서, 블랙리스트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 공직자로서 당연히 책임이 있고 죄송하고 흔쾌히 사과해야 된다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역으로 한번 여쭙게요.

최종적으로 불문경고라는 게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종류라고 한다면 이렇게 특검, 검찰 수사, 감사원 조사까지 다 해서 6, 7년 돌면서 나온 결과가 불문경고인 수준의 것으로…… 용 차관님은 결국에는 공직의 상당 부분, 가장 꽃이 피어야 될 마지막 상당 부분을 이렇게 돌았는데 국가에 대한 억울한 점은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공직이라는 게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시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제가 공직 생활하는 동안에 받았던 혜택은 그것보다 훨씬 더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억울해 한다거나 외부에, 사법적인 부분이든 언론적인 부분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우리 사회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한쪽에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이 있으면 또 다른 측에서는 용 차관님처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또 그런 식으로 피해 보는 측도 있어요, 분명히.

언제까지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여기서 이제는 대충 우리가 많이 겪었으니까요 승화해서 넘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 주셨는데 파리한국영화제에 대해서 조금 아세요? 이게 국가가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민간 차원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해외에서 열리는 영화제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제가 알기로 파리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민간에서 하는 거지요?

업무보고현황 보니까 문체부 관할, 직속·소속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삼천 분 정도 돼요. 당시에 근무하던 문체비서관실에 몇 분이요, 아까 네다섯 분?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박정하 위원 삼천 분이 근무하는 건을 청와대에 계시면서 네다섯 분이 관리를 합니다. 보통 몇 시에 퇴근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청와대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정하 위원 청와대에 있을 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보통 7~8시 정도 퇴근하고 대신에 새벽 5시 반 정도 출근을 하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거의 개인 생활은 없이 일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예.

○박정하 위원 그래도 이렇게 삼천 분이나 되는 분이 하는 업무를 네다섯 분이 정리를 하다 보면 굉장히 격하게 일을 해요.

그러면 정부가 관리하지 않는 이런 파리한국영화제 같은 건에 대해서도 챙겨볼 거를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그 당시로서 그럴 거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제 경험에 비춰 봐서도 이런 것을 청와대에서 이렇다 저렇다, 이런 영화를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할 만한 거를이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고요.

김효재 언론재단 이사장님께 좀 여쭙볼게요.

제가 과문해서 해서 여쭙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 뉴스 리포트, 제가 알고 있기로는 16년부터 언론재단이 가입해서 받고 있는 건데, 맞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맞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맞습니다.

○박정하 위원 연간 우리가 2만 5000파운드, 한 450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고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옥스퍼드대라는 건 명성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이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검증 한번 해 보셨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이 그 연구소 자체를 검증할 수는 없고요.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고 샘플 퍼지(fuzzy)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연구소 스스로가 거기다가 그 방법론에 뭐라고 써 놔냐면 조사는 이메일 설문조사라는 한계가 있다……

○박정하 위원 이사장님……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래서 여기에서 $\pm 2\%p$ 는 오차 범위의 바깥에 있는 것들이 아니고 이 안에 있는 것들의 차이를, 여간 조심해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박정하 위원 조금 이따가 다시 조금 더 여쭙게요.

이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로이터 통신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아마 직접 관련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좀 정리해서 저한테 자료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 옥스퍼드대 부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가 과연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기관인지, 로이터 통신하고 정말 관련이 있는 기관인지, 우리가 연간 2만 5000파운드씩 지불하면서 이걸 받아야 될 만한 역량이 있는 기관인지를 한번 좀 자료, 나름대로 언론재단에서 해서 주시면 제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리고 좀 전……

제가 재보충질의 포기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설문조사 방법론에 대해서, 여기서 유…… 글로벌리서치 이런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온라인 설문조사라고 하는 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데 컴퓨터에 들어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거기의 설문에 응하는 방식인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제가 받고 응답을 해서 샘플링이 추출되는 게 아니라 각 각이 자발적으로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거기서 제가 옳다 그르다 아니면 몇 점이다 이런

걸 평가하는 거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게 신뢰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들이 그걸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하나의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필리핀에 독립언론을 운영했던 필리핀 여성 노벨상 수상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원래 여기의 자문위원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하면서 나 이것 탈퇴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운영하는 언론사를 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서 꼴찌로 평가를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게 필리핀 정부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에다가 연구 방법을 바꿔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안 하니까 작년에 이분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의 신뢰도 조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그 자문위원회에서 탈퇴한다’라고 영국 가디언지하고 인터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CNN의 아시아 특파원을 한 20여 년 정도 지냈는데요. 아시아 최초의 여성 노벨 수상자이시지요, 언론인이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는, 이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바라보는 그 시각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연구소의 신뢰도 또는 신뢰성의 어떤 평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는 이게 썩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다. 그리고 인구 구성 분포하고 딱 맞춰서 한—저희 언론재단에서 조사하는 여러 가지 조사가 있습니다—그것하고도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계급 또는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연령대가 과표집되고 과다한 목소리가 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 위원님들의 보충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장관께 묻겠습니다.

제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인을 해 보니까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 개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아까 민생 살리는 문체부 만들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경제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게임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게임이 갖고 있는 게 우리 콘텐츠 수출의 약 70%에 해당하니까요 상당한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12조 정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그리고 2022년 연구 결과에 따르자면 만약에 이렇게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가 개발이 돼서 질병코드화가 인정이 되면 총 8조 8000억 원의 피해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 왜 놔두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질병코드와 게임을 그렇게 규정하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반대하시는데 여기에 왜 동의를 해서……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게임이용장애 진단척도가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제가 동의한 적 없는데요? 동의했나?

○강유정 위원 보건복지부로부터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내용 잘 모르시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동의한 적은 없는데요……

○강유정 위원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그냥 방치했냐라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방치하지는 않을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충분히 이의 제기를 할 거고요. 또 지금 현재 상태에서 게임을 질병코드화한다면 이건 상당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산하기관 차원에서 WHO-FIC에는 왜 의견을 제안한 일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썄요, 저한테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오거나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니, 민생에 대해서…… 게임을 살리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KCD에 질병코드로 등재가 된다면 콘텐츠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게 뻔한데 여기에 대해서 별 대응이 없다면 오히려 찬성 쪽의 입장에 더 힘을 실어 주는 결과를 주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대응을…… 없는 게, 대응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요 이 문제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했더니……

PPT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별도 자료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이 왔거든요, 통계법에서도 지금 질병코드로 등재하고 있는데.

왜 그리고 여기에 대한 별도 자료도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가요?

○강유정 위원 예, 이렇게 답이 왔다니까요.

제가 뭐라 그랬냐 하면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문제에 대해서 이게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지 생각하는지,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구했더니 일체 아무 별도 자료도 없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사실 저희들은 무조건 게임 진흥에 관한 의견만 냈지요.

○강유정 위원 진흥을 하시면서 왜 지금 말하자면 엑스맨처럼 방해하고 있는 거냐, 민생 제대로 살려라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이걸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강유정 위원 ‘노무현입니다’, ‘천안함 프로젝트’, ‘그대가 조국’, ‘문재인입니다’ 이거 예술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건 예술은 아니지요.

○강유정 위원 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못 봤습니다.

○강유정 위원 안 보고 예술이 아니라고 말하는 문체부장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뭐 그건 보나 마나입니다.

○강유정 위원 보나 마나라고 말하는……

이거는 제 질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판단을 내릴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왜냐하면 목적을 갖고 있는 경우와는……

○강유정 위원 보지도 않고 지금 가이드라인 내려서 이걸 예술이 아니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강유정 위원 질의 끝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 얘기는 목적을 갖고 찍는 예술은 그건 예술로서 평가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강유정 위원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안 보고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보지도 않고 어떻게 평가합니까?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님,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다 하더라도 민간 부분의 교류, 특히 스포츠 이런 부분의 교류는 좀 계속 진행돼야 된다, 저도 뭐 굉장히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8년 평창올림픽 당시에 대회를 불과 한 달도 채 안 남겨 두고 여자 아이스하키팀, 정말 정치적으로 보여 주기를 위해 가지고 단일팀 전격 발표해서 우리 선수들이 수년간 참 피와 땀을 흘렸던 그 꿈을 무참하게 짓밟는 그런 쪽의 정치적인 쇼 이런 건 저는 반대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은 계속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또 장관님께서 저번에 관광협회 행사에서도 말씀하셨듯이 6·25 호국 전적지에 대한 그런 관광명소화 사업에 굉장히 의지를 갖고 계시고 지금 용역 준비중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6·25 때 여러 가지 격전지가 있습니다마는 제 지역구 인근에 있는 다부동, 8월 달 가장 더운 날씨가 정말 많은 군인들이 사망했고 주민들, 군인도 아닌 주민들이 지계에 폭탄을 싣고 산에 오르내리면서 그렇게 낙동강을 방어했었는데 제대로 된 추모비나 이런 것도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장관님 의도하셨듯이 이런 호국 전적지에 대해서 관광명소화해서 그런 호국정신을 북돋아 주면서 또 외국인들한테까지도 관광지화하는 것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생각을 합니다.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가유산청장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제 지역구 내에 보면 구암동 고분군하고 팔거산성이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김승수 위원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은 보존과 활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대로 좀 보존하고 그다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꽤 됐지요, 국가사적 지정된 지가, 구암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좀 됐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활용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대로 좀 보여 줄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사업들이 거의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용역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주변에 삼국시대 때의 유산·유적들부터 비롯해서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의 유적들이 굉장히 가까운 근거리에 산재해 있는 만큼 보여 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종합적인 역사문화 관광벨트화하는 구상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보존이라는 건 당연히 저희 국가유산청에서 해야 될 의무 중에 하나고요.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요새 새롭게 바뀌는 저희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야간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러한 사적이라든가 고분군을 이용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저희가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면서 다른 사례, 모범사례를 통해서 여기에서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올해부터 국가유산 경관개선 사업이라 그래서 국가유산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도 조금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너무 사업비도 적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도 좀 확대를 해서, 특히 저희 지역같이 도심에 국가유산이 바로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 나아가서는 또 우리 지역을 찾는 외래 관광객들을 위한 그런 관광자원화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관련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장관님, 23차 비상민생경제회의에서 18개 분야 부담금을 폐지하고 14개 분야 부담금을 감면 조치하겠다고 이렇게 밝혔는데 그중에 잘 아시다시피 폐지 부담금 항목 중에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도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장관님, 이거 문체부가 대통령실에 건의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아마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 제안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그 안에서 기재부하고 많은 시간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 문제는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주자는 의미로 아마 저희 부처만 그런 게 아니라 전 부처 부담금을 다 없애는 쪽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이거는 저희들이 국고에서 다시 부담을 하고, 또 이 영화법은 국회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미완으로 남아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지금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화발전기금을 국고로 충당해서 해당 지원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K-무비의 저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작년에 세수가 한 56조 원 핑크가 나 있는 상태고요, 올해도 약 40조 원 세수결손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의 설명대로 영화진흥기금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미 영화 쪽이나 출판 쪽의 예산 깎인 부분들은 내년 예산에 다 보완하는 걸로 저희들이 정리를 끝냈고요.

이거는 하여간 지금 영화뿐 아니라 관광 쪽의 출입 부담금도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 부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큼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나름대로의 방법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좋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협력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박수현 위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와 관련도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인데 지역문화협력위원회가 2022년 8월에 4기 위원들을 위촉했는데 작년 회의는 모두 서면회의로 갈음했어요. 그리고 올해도 1회 회의를 진행했다고 되어 있지만 문체부 홈페이지 내에 한 달에 한 번 올라오는 행정위원회 현황 파일을 지난 1월 이후에 전혀 올리지 않고 있어서 해당 회의의 진행 방식과 안전조차 알 수가 없어요.

이 지역문화협력위원회를 이런 식으로 아마 생각하고 진행을 하고 이렇게 취급을 해서, 이렇게 인식을 해서 어떻게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챙겨 보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만 지역문화발전위원회가 우동기 위원장 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활발하게 같이 의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거는 문화에 관련된 걸 한정해 놓아서 그쪽에서 오히려 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아까 장관의 인사말씀 중에 나왔던 로컬100 사업인데요, 제가 지역별로 선정된 개수를 보니까 100개 중 53개가 수도권·영남권에 집중되어 있는, 편중이라고 할 수 있는 수치들을 보이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한번 좀 잘 들여다

보시겠어요? 이게 진짜 제대로 균형 있게 배정이 된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숫자가 배정이 된 건지 제가 좀 이해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거는 아마 지역에서 다 신청을 했고요. 아마 총 사백한 이삼십여 개가 신청이 되고 그 안에서 그런 지역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결정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지역문화 100선이라고 해서 또 100군데가 선정돼 있는 게 있고요. 이걸 로컬100이라고 해서 또 지역의 유명한 가볼 만한 곳을 또 더 하자 이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다 합치면 크게 아마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지역 자체니까.

○박수현 위원 하여튼 본 위원 질문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 내용들을 좀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혹시 저에게 그런 어떤 설명 자료를 주실 수 있으면 의원실로 제출을 해 주시면 제가 다른 위원님들과 공유하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한번 자세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 이 로컬100이나 지역문화 100선 이런 데는 제가 직접 다 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나름대로 그런 보고서를 잘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국가유산청장, 청이라는 곳의 독립적인 권한이나 업무 수행 기능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나름대로 저희 업무분장의 내용과 이런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리나라 국가유산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입니다.

최근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개념이 확대가 돼서 유산청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8일 문체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유산청에 대한 지휘 강화 의지로 보이는데요.

청장은 문체부가 입법예고한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개정안의 내용 알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위원 개정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거는 문체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또 이렇게 협조할 수 있는 차원으로……

○김재원 위원 예, 제가 빨리 좀 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제가 확인하니까 현재 법제처 심사 과정 중입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 개정안 내용 중 추가 반영된 주요 조항, 타 부처 청 4곳과 비교한 표입니다.

특허청은 아예 없고요. 소속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업무 중 중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에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만 포함돼 있다가 공직유관단체까지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또 국가유산이라는 특수성 반영한 조항이 다섯 가지나 더 신설이 되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청을 독립적으로 두는 이유가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해서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것인데요. 이번 개정안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논의되는 게 4조 2항입니다. 국민 문화 향유 및 국가유산 활동 등 장관의 관장사무로 개정안을 통해서 보고 범위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관, 장관께서는 국가유산청에서 정책 수립하고 시행할 때 건건이 모든 걸 다 보고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건 유산청하교의 협력의 관계기 때문예요, 끊임없이 사실은 의사 교환을 해야 되고요. 이게 특별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다른 부처도 소속기관 또는 청과의 다 기본적으로 하는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겁니다.

○김재원 위원 이번 규칙 예고로 문화계 일각에서 아주 우려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러면서 지휘 규칙 개정을 바로 이 시점에 하는 것 또 이게 협력을 위한 소통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청에 대한 통제와 협조만을 강요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도 또 듭니다. 두 기관의 기능과 업무가 엄연히 다른데 말이지요.

장관께서는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국가유산청 전문성 당연히 존중한다. 그런데 문체부와 의논을 많이 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상위 부처와 진행을 하는 많은 보고 또는 의논이 국가유산청 전문성과 특수성을 훼손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됩니다.

무조건 도와드리겠다고 장관께서 기사상에서 약속하셨는데요, 현재 개정안부터 국가유산청 본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아마 그런 다른 일은 없을 거라고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유산청장님, 자신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어떤 자신……

○김재원 위원 협의 잘해서 이끌어 나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물론이지요. 장관님하고 자주 소통하고 있습……

○김재원 위원 장관님께서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안산시갑 언론학 박사 양문석입니다.

광고비 책정 실무단위 국장님이 누구세요? 미디어정책국장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마이크 좀 들어 주세요.

다시 또 한번 묻겠습니다.

이 자료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닐슨코리아 조사 결과를 보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손도 안 댔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보내 준 데이터 그대로 하는 겁니다.

TV조선, 22년에 0.316—시청률입니다—23년에 0.272인데 약 30% 가까운 인상을 해 줍니다. 7억에서 10억으로 올려 줬어요. 그리고 전체 43억 중에 10억을 TV조선에 뚝 떼어 줬어요. 합리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언론진흥재단 이사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게 광고주하고 매체사 협상을 통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국장님, 제가 부드럽게 계속 이야기하게 좀 도와 주십시오.

문화부 정부광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부, 방송매체에 준 정부광고비입니다. 43억 중에 10억을 뚝 떼어 줬어요, 기분 시원하게. TV조선만 좋은 겁니다.

그다음에 SBS 한번 봅시다. 전체 1등을 했어요. 0.850으로 언론재단이 준 데이터 중에 시청률 1등을 했어요, 0.850. 그런데 광고가 22년에는 12억이었던 것을 23년에는 5800만 원으로 거의 60%를 날려 버렸어요.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에요, 아니에요? 여기가 시청률 1등입니다. 합리적이지 않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것은 제가 판단하기 좀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도대체 그러면 뭘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야, 시청률을 빼고!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위원님, 제가 하는 것은……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정부광고 정책에 대해서 합니다. 제도를 운영 합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충분히 안정적이고 유연하게, 부드럽게 토론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JTBC, 7억 51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무려 90% 삭감을 합니다, JTBC는. TV조선 하고 JTBC 시청률이요 TV조선 0.272, JTBC 0.408, 더블 스코어입니다. 시청률은 JTBC 가 더블 스코어인데 TV조선은 30% 인상해 주고 JTBC는 90% 삭감을 합니다. 합리적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

○양문석 위원 대답을 하세요, 합리적인지 아닌지!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문석 위원 보세요.

홍보매체 선정할 때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부장관은 홍보매체의 선정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홍보매체의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두 번째, 홍보매체 선정 과정에서 제6조, 아무리 정부기관의 의견을 우선한다 하더라도 단서가 있지요?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 조항이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양문석 위원 아까 김효재 이사장께서 ‘다른 기관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언론재단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민형배 위원에 대해서 답변했어요. 잘못된 답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 경우 광고의 목적, 국민의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고려하여야 한다', 의무조항이에요. 문화부가 이 부분에 대한 의무조항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과 자료 만들어 본 적 없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까 장관께서도 대충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했는데, 이렇게 JTBC나 SBS나…… MBC는 아예 0원이고요. 이런 현상들이 오로지 TV조선 하나를 몰아주기 위해서, JTBC가 희생하고 SBS가 희생하고 MBC가 희생했던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그건 제가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할 거예요? 장관도 판단 못 해, 미디어정책국장도 판단 못 해. 과장한테……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아닙니다. 그 예산 자체를 미디어정책국에서 집행하지 않았습시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집행의 문제가 아니고 누가 이 계획을 잡았냐고요! 누가 광고 배정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장관보고 책임지라 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모든 게 제 책임이니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관님, 지금 상황에서 바로잡기 위해서 법적 조치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으면 하겠는데요.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불합리하잖아요.

장관님도 시청률이 일차적인 광고 집행의 가장 결정적인 데이터라는 건 인정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 그렇습시다, 그건.

○양문석 위원 그런데 지금 미디어……

잠깐 계서 보세요.

미디어국장, 우리가 좀 부드럽고 편안하게 이야기합시다.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예.

○양문석 위원 비합리적이지요? 배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요? 느낌적 느낌상만 대답하세요. 시청률과 아주 동떨어진, 그러면서 JTBC가……

조금만 더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충분히 드렸는데……

1분 안에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JTBC 같은 경우에 거의 90%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MBC는 100% 삭감을 했어요. SBS는 제가 대충 계산을 하니까 한 60% 삭감을 했어요. 문화체육부에서 SBS, MBC, JTBC 삭감하면서 그 대부분을 TV조선에 몰아줬단 말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합니다. 그 결재 라인, 광고액 배분 과정의 그 결재 라인과 공문들 그리고 장관께 보고했던 내용들을 자료제출 요구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청을 한꺼번에 좀 하면 좋겠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양문석 위원 문화부, 정부광고의 책정 기준 및 참고자료, 의사결정 과정과 관련된 자료들을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KTV,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를 선임했던 관련 자료, 어떻게 선임했고 누가 선임했고 하는 관련 자료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요청합니다.

현안 청문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KTV, 김건희 여사의 변호사 최지우 증인 그다음에 전 KTV 원장 하종대 그다음에 불명의 문화부 정부광고 책정 과정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불러서 현안 청문회를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산시갑 언론학 박사 양문석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현안 청문회 요청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장관님, 하나 여쭙보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날 다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을 위한 언론중재법이 재발의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내용은 아시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정연욱 위원 그게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법안과 크게 달라졌습니까? 내용이 뭐가 진전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조금 더 진전된 느낌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악의적으로…… 그게 가장 핵심적인 쟁점 같습니다.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왜곡 보도를 하는 경우 징벌적 배상을 한다, 3배 이런 얘기도 있지요. 이 악의적 기준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다분히 좀 개인적인 판단도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런 부분이 좀 더 진도가 나가면 아마 언론사의 입장에서서는 나름대로 굉장히 위축되고, 표현의 자유라든가 기사 쓰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언론 보도에 있어서 오보로 인한 일반 시민들의 피해는, 당연히 오보 대응은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떤 형태로든 오보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시켜야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런 주관적인 기준 그리고 자의적으로 이렇게 언제 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징벌적 배상을 한다? 이게 유례가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지금 있는 언론중재법으로도 충분히 활용을 잘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너무 과도한 법안이 되면 아마 여러 기관이나 여기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위축될 거다, 그러면 우리 사회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아마 이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상당수 언론 현업단체에서, 그러니까 진영을 떠나서 공히 다 반대해서 전부 다 여론에 밀려서 폐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맞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차피 언론 오보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다 어떤 형태든 언론중재법이나 절차상 하면 되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다만 과도하게 되면, 이건 또 절차상 형법에 의한 형사처벌 기준이 있고 또 이게 중복되는 여러 가지 법리상 문제점도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 구제할 수 있는 가능성도 다 열려 있는 거지요.

○정연욱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문화부 차원에서 중재법 문제는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아까 존경하는 박정하 간사님께서 용 차관님께 몇 가지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공직자관이 있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차관님, 부이사관 승진 몇 년도에 하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부이사관 승진 아마 2012년쯤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이기현 위원 12년에 승진하시고 14년도에 선임행정관 2급 이사관 승진하셨네요, 2년 사이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2년에서 3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보통 행시 패스한 공직자가 3급에서 2급 가는 데 몇 년 걸립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옹호성 보통 저희 문화부에서는 한 이삼 년 정도 걸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삼 년, 문화부는 그렇게 걸립니까? 제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좀 다른데요.

제가 알קות게 묻는 건 아니고, 제가 느끼는 공직자는 적어도 공직에 계시면서 국민들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을 때가 인생의 화양연화입니다. 저는 그런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피해를 봤다 내지는 자기가 고통을 받았다고 공직에 계시면서 얘기하고 그렇게 주변의 질문에…… 그런 식의 대답은 안 하셨습니다만 그런 자세, 나는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공직생활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피해는, 공직자들이 잘못하면 그 피해는 수많은 국민들과, 특히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수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그 피해를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아, 죄송합니다, 입에 아직 안 익어서.

유산청장님, 산양이 작년에 많이 죽었지요? 저희 보도자료를 통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1000마리 정도 필 수가 지금 줄어 가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환경부에서 추산하고 있었던 재작년의 21년도 통계를 보면 살아 있는 산양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산양이 약 1500~2000마리 정도라고 하는데 한겨울에, 작년 겨울에 1000마리 이상이 폐사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한 바로는 역시 아주 혹한의 먹이 부족이 우선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동로 문제에 대한, 철책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갑작스러운 폐사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안이 있으세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대안은 역시 올해 급식대를 2배로 확대하고, 우리보다 더 많은 산양을 관리했던 민간단체를 포함한 관계전문가 TF 운영을 통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지금 먹이 주기는 주로 조류를 중심으로 겨울에 먹이를 줬는데 이건 포유류입니다. 발이 있고 조류와 좀 다른 포유류의 종류이기 때문에 예전에 조류를 중심으로 해서 줬던 먹이 주기 방식으로는 놓칠 수 있습니다.

만약 2000마리 중에 반이, 1000마리가 한겨울에 죽었다고 하면 올 겨울에 그 반이 죽고 내년에 또 죽으면 산양은 멸종하는 겁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저희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저는 청장님께서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단순히 먹이 주기 문제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 겨울에 나머지 1000마리가 다 폐사할 수도 있습니다, 먹이를 못 구해서. 그런 일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청장님이 꼭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단순히 먹이 주기 이외 결과에 대해서도, 꼭 저희들한테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데, 간단하게 문화예술강사 문제만 장관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예술강사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2000년에서부터 시작됐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24년 동안 진행되었고 이것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전문 강사들에게 문화예술을 접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이것을 통해서 많은 문화예술인들께서, 특히 40대 여성 문화예술인들께서 적어도, 작지만 생계 유지에 보탬을 받으셨고 그 힘으로 문화예술의 활동을 영위하셨습니다.

예산이 많이 삭감된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 삭감된 것이, 아마 이 사업이 지역 이관 사업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체육강사, 예술강사를 제가 15년 전에 할 때 그때 다 활성화시킨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대개 지역 이관 사무로 넘어갔고 체육강사도 지금 1대 9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가 1을 예산을 배분을 하고 9를 지역에서 합니다. 그런데 예술강사도 지금 점점 지역 이관 사업으로 넘어가면서 예산이 좀 줄어들고……

○이기현 위원 예, 제가 내용 알고 있고요.

교육청 예산으로 나머지 삭감된 예산 메꾸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희들이 현재 협의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방교육청이 문체부에서 보내는 공문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교육청 예산에서 증액할까요?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기현 위원 통계를 보면, 올해 기준으로 보면 작년에는 예술강사들이 약 1100만 원 정도 연봉을 평균적으로 받았는데 올해 삭감된 예산 때문에 한 930만 원, 달로 치면 한 77만 원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적어도 40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 내지는 가족의 주요 구성원들이 이 돈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쓰리잡, 포잡 이렇게 뛰면서 버티는 건데.

이 사업 때문에 4000여 명의 강사들께서 그래도 자기가 전공했던 문화예술을 놓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면서 또 본인의 발전에도 좋은 자양분으로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무려 24년 된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대가 끊기거나 이것이 더 이상 우리 문화예술인들을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늘봄강사나 그 외에 사회·문화·예술·교육 이쪽으로 지금 대부분 흡수시키려고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역 이관 사업 자체는 우리가 교육부나 교육청하고 이거는 끊임없이 협의를 해야 되는 일이라, 결국은 여기에 기재부도 같이 다 협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현재의 기조로 보서는 지역 이관으로 계속 넘어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보완시키려고 지금 여러 각도로 연구 중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기현 위원 한 말씀만 드리면 그냥 지방교육청에, 지역교육청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썄요, 그런……

○이기현 위원 교육감님들께서 절대로 예산 늘려 주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대부분 내려간 사업들이 좀 그런 환경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용호성 차관님, 본인의 직의 무거움을 그리고 명예를 생각하면서 ‘예, 아니요’로 확실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비서관실에서 근무할 때 영화 ‘변호인’의 파리한국영화제 출품을 배제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그런 언급을 한 기억이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2014년 1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국립국악원 기획운영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악원 공연에 박정희 풍자극 ‘개구리’ 등을 만들었던 박근형 연출가의 작품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지시한 적 없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없었고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사건이 있기 전에……

○조계원 위원 ‘예, 아니요’로만 답하시고요.

본인의 직을 걸고 확실하게 진실을 말했다고 자부할 수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용호성 예.

○조계원 위원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광양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 혹시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예, 맞습니다.

원래는 광양시 옥룡면 운평리 중흥사에 있던 쌍사자 석등은 지난 1930년 일본인에 팔릴 뻔하다가 석등이 위치한 토지주인 소유자가 유물의 무단 매매 및 반출 시도를 당시 광양군 경찰 주재소에 신고하면서 유물의 반출을 막았습니다. 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조선총독부 박물관 그다음에 경복궁 자경전 앞 그리고 해방 이후에는 덕수궁 석조전 그리고 국립중앙박물관을 거쳐서 현재의 국립광주

박물관에 있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당시 문화의병과 같았던 광양군민들의 노력으로 일본에 반출되려 했던 쌍사자 석등이 지금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문화유산은 지역의 삶과 정신의 뿌리로서 그 문화유산이 제 위치에서 원형이 보존될 때 그 역사성과 의의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동안 많이 반출됐던 그러한 석조 문화유산은 대개 지역의 폐사라든가 이렇게 관리가 안 돼서 사실 옮겨온 게 맞고요. 지금 최근에 와서는 그 지역으로 많이, 그것이 완전하게 정착이 되고 관리가 될 때는 돌려주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전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관계기관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들어 보신 적 있으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세계섬박람회는……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해양수산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 줘야만이 이 박람회가 성공을 거둘 수 있고 세계적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관님과 청장님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질의할 많은 콘텐츠가 있는데, 성공 개최를 위해 여러 가지 콘텐츠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 요청 좀 할 게 있는데……

○위원장 전재수 예, 마저 하십시오.

○조계원 위원 아까 그 보스턴미술관에서 석가모니 진신사리와 지공·나옹선사 사리를 가져왔지 않습니까, 청장님?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게 기존의…… 핵심은 이겁니다. 기존의 정책은 사리와 사리구의 동시 반환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리만을, 김건희 여사가 사리만을 반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의해서……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그런 건 없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적은 없고요. 사리와 사리구를 동일하게 한다는 게 아니라 사리구 안에 사리가 있으니까 이걸 동시 반환이 맞고요. 다만 협상을 위해서는 사리라도 먼저 종단에서 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시작이 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료 요청 내용은요 첫 번째 사리구 반환 관련 미국 보스턴미술관 측과의 회의록을 비롯한 기록 일체, 두 번째로 외교부 등 정부부처와의 논의 과정 일체—회의록, 외교부 담당자, 부서 관계기관 목록까지 포함해서입니다—세 번째로 반환에 소요된 예산 일체 그리고 네 번째로 반환 협의를 위한 출장 기록 그리고 관계기관 동행 시에 그 기관명을 함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현재 반환 협의 진행 중인 국가유산 목록과 협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 목록, 회의 자료, 출장 일지, 출장 예산, 예산집행 내역, 민간 협력단체 및 전문가 명단을 포함해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 국정감사 때 콘진원에서 58억 원을 들여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개발 위탁용역을 진행한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실행되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콘진원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신……

○김윤덕 위원 예.

그랬는데, 콘텐츠진흥원이 아주 이례적으로 이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반박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58억 투입된 교육용 게임 콘텐츠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해 가지고.

그래서 실제 그 교육용 콘텐츠 일부 내용이 구동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방에서 콘텐츠위원장님 같이 구동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안 돼 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래서 문체부에 또 확인을 하니 문체부에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마지막 종감 때, 종합감사 때 자기들도 해 보니까 구동이 안 되더라 해 가지고 또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문체부 과장에게 ‘아니, 콘텐츠진흥원에서 보도자료 낼 때 당신들은 이거 확인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체부에서는 ‘아니, 진흥원에서 하겠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였고 또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이게 부원장, 원장 또 문체부 검토까지 또 경영본부장까지 다 허락 맡고 내보낸 거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말이 안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국정감사 때 위원이 한 얘기를 콘텐츠진흥원이 자신감이 넘치니까 이례적으로 반박자료를 냈지 않겠습니까?

두 가지 핵심적 내용인데 하나는 구동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용역하고 있는 그 교수에게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자꾸 어떤 지침을 주는 건 부당한 압력에 해당한다. 자기들은 그런 적 없다, 진흥원 측에서는 그랬고.

그런데 이게 다 확인이 됐어요. 감사 결과 구동이 안 되었고 그다음에 콘텐츠진흥원 직원이 용역 과정에서 개입한 건 부당한 개입이다 이런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박자료 낸 게 허구인 게 드러났잖아요. 구동 안 되는 게 분명해졌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이제 확인 보도자료를 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런데 그걸 계속 안 내요. 그래서 ‘내라, 내라, 내라’ 했는데 드디어 냈습니다. 작년 국정감사 10월 달에 했는데 올해 7월 4일 날, 정말 눈물겹게……

국장님 어디 계세요, 진흥원장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조현래 여기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서 계세요. 원장님, 서 보세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진짜 고맙습니다. 반박자료를 내시고 무려 1년도 되기 이전에 사과 설명자료를 내서 가지고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고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내용은 제가 사실은 자세히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류가 발생했고 또 일부 기능이 구현이 되지 않았다면 이것은, 물론 보완해서 구동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일단 기관에, 콘진원에 주의 촉구하고 저희가 시정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 보시게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지적하기 이전에 콘텐츠진흥원에서는 최소한 이 내용을 몰랐던 거지요, 그렇지요? 아니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맥시멈으로 의심하자면 업자하고 짤 수도 있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게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버틴 거지요. 버텼다가 실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구동이 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김윤덕 위원 장관님, 되는 줄 알았다고 하는 건…… 콘텐츠원장님이 저는 되는 줄 알았습니까라고 말하면 믿겠어요. 그런데 실무자가 되는 줄 알았다, 담당 팀장이 되는 줄 알았다, 애기 좀 다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되는 걸 확인하고 납품을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알았다면, 그렇지요? 알고도 그랬다면 나쁜 놈이고 몰랐다면 바보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규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반박자료를 내는 것 또 거기에 따른 사과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하나의 결과물이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장관님,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문체부의 답변이 참으로 이상합니다. 콘텐츠진흥원에서 보도자료 잘못된 걸 냈는데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관리 감독할 권한이 문체부에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뭐 없는 건 아니지요.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야지요.

○김윤덕 위원 해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작년 10월에 국정감사에서 지적했고 반박자료를 냈고 그게 아니라는 게 분명해졌는데 사과 보도자료가 7월 달에 나온 것은 콘텐츠진흥원도 문제지만 이걸 관리 감독하는 문제부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머리 한번 긁적일 정도의 문제인가요? 국정감사에서 진흥원에서 파악도 하고 있지 못한 문제를 국회의원이 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고치고 수정하는 과정이 머리 한번 긁적이고 ‘죄송해요. 알았어요. 다음부터 잘 할게요’ 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부분은 저도 다시 확인을 하고요, 사업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주의를 계속 주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 담당 과장님에게 우리 장관님께서, 그러니까 보도자료 문제에 대해서 담당 과장이 그런 태도를 취한 게 문제가 있다면 담당 과장에게 최소한 분명한 징계나 주의 이런 게 필요하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재발 방지가 약속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또 하나,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받고 정말 너무나 빨리 1년도 안 돼서 드디어 7월 4일 날 사과성명을 냈어요, 보도자료를.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용 게임이 어찌고저찌고, 저는 솔직히 자세한 것은 몰라요. 게임은 진짜 너무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어쨌든 구동이 안 됐는데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시정을 했어요.

다만 반박성명 낼 때에는……… 직원이 위탁용역 교수에게 뭔가 중간에 자꾸 얘기하는 것은 부당한 개입이다라고 하는 것도 감사원 감사 결과 부당한 개입이라고 규정이 내려졌고 주의 조치가 있었어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데 이번에 7월 4일 날 나간 거기에는 그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시간이 무려 몇 달 동안 지난 그 후에 낸 사과문조차도, 보도자료조차도 반쪽짜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확인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것은 제가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장관님, 이렇게 하시지요.

첫 번째로 교육용 게임 이게 어떻게 해서 국정감사 질문 후에………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물랐다면 바보입니다. 그 직원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원래. 담당 팀장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납품을 받았는데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김윤덕 위원 두 번째로는 반박 보도자료가 나가게 된 배경, 앞으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제기한 그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반박자료 조목조목 낼 것 아닙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장관님.

그러면 반박자료가 나가게 된 배경과 과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문체부의 정확한 입장…… 문체부 과장이, 문체부 담당 국장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분명하게 사과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또 하나는 콘진원에서 국정감사 제기 후에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잘못돼 있는지에 대해서 콘진원 자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을 장관님이 다시 한번 감독하셔 가지고 장관님이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우리 김윤덕 위원님 본질의, 추가질의, 보충질의를 안 하시고 오늘 처음 질의라 시간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김윤덕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양해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자료제출 요구 1분만 쓰겠습니다.

장관님,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체계 조직 정비 연구 용역이라는 것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님, 이 자료를 그렇게 좀 달라고 그래도 이 용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료를 제출 안 해 줘서 질의를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사실은 제가 이것을 좀 여쭙보려고 하는데. 그것 좀 주시고요.

김효재 이사장님, 아까 시간 때문에 제대로 말씀 못 드려서 김효재 이사장님께 이 자료 좀 요청해 주십시오.

시청률하고 방송사 영향력 등이 반영된 정부광고 집행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조계원 위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시던데 TV조선의 수도권 시청률은 2021년 0.5%에서 2023년 0.2%로 0.3%p가 줄었는데—60%가 준 거지요—어떻게 정부광고 수입은 50%나 늘었냐, 그러니까 시청률하고 정부광고 집행 사이의 연관성을 좀 알아야겠는데 정부광고법 보면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체부는 광고주가—정부기관이지요—요청하면 홍보매체 선정에 필요한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등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매체의 효과성 분석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광고는 이 정보를 활용해서

홍보매체를 광고주들이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홍보매체의 정보 제공이나 효과성 분석이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시청률과 정부광고 집행의 매칭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을 좀 확인해 보려고 그러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요, 제가 그냥 구두로 지금 말씀드리고 이따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연도별 효과성 분석 기준 및 효과성 분석 조사 정보 제공 이 자료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매체에 어떻게 이 분석 조사 결과를 제공했는지요. 두 번째는 최근 3년간 효과성 분석 및 구독률, 열독률, 시청률, 이용률 대비 정부기관의 각 매체별, 유형별 광고 건수와 광고 금액 자료 이것을 꼭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현안질의가 되는데 이런 자료를 계속 안 주니까 되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장관님, 문화 정책이 총선 전과 총선 후가 바뀌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겠지요, 총선 전과 총선 후가 바뀌었다고 그러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선거 전후로 바뀌는 것은 좀 이상하지요.

○민형배 위원 이상하지요? 매우 이상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현대미술관의 적정 소장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민형배 위원 대략.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모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보통 80% 정도입니다.

뒤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이런 것은 알려 드려야 돼요. 대략 미술관이라고 하는 게 수 장고가 어느 정도나……

그러면 서울관 소장률은 얼마나 되는지 더 모르시겠지요? 120%입니다.

과천관도 93.4%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거의 차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분관을 여기저기 지으려고 고민하고 계시는 거고 아까 그 용역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포화 상태인 것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이것은 지금 정부가 소장품 수장에 대한 수요 예측을 잘못된 건데 그 표를 한번 보시면 금방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국립현대미술관이 몇 곳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서울관, 과천관, 청주……

○민형배 위원 그렇지요. 세 곳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리고 중부권 두 곳, 영남권 두 곳에 지금 편중이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저것 보십시오. 수도권에 과천관, 덕수궁관, 서울관이 있고 중부권에 청주관, 대전관—대전관은 개관 예정이고요—영남권에 진주관은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대구 국립근대미술관이 2027년에 건립 예정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표 한번 봐 보세요. 수도권, 중부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것은 지금 계획 중일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계획까지를 포함해서요.

오늘 보고에 보면 네 번째로 ‘문화로 지역소멸, 고립감 등 사회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러셨지요? 문화에 관심을 갖겠다고 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에 있는데—PT 좀 올려 줘 보세요—왜 광주권은 없지요? 왜 호남권은 없지요, 현대미술관이?

그래서 장관님께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관 유치에 동의를 하시는 발언을 그동안 몇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2024년 올해 4월까지도 기재부에다가 타당성조사 건의까지 하셨는데 5월 들어서 선거가 딱 끝나고 나서 문체부에서 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빼 버렸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까지는 제가 기억을……

○민형배 위원 못 보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왜 연초까지만 해도 문체부가 찬성을 하다가 총선 끝나고 나니까 광주관이 사라졌습니까? 왜 태도가 바뀌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총선 끝나고 그런 개념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저는 광주는 오히려 미술관 개념보다는 국제적인 레지던스를 할 수 있는, 신양파크호텔을 리모델링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제가 제안을 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미술관이 약간 변형은 될 수 있지만 그런 문화인프라를 까는 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민형배 위원 그러면 지자체하고 정부가 다 이런 지역문화 예술에 대한 기반을 깔아주는 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법에 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민형배 위원 그것은 그러면 광주시랑 상의를 좀 하셔야겠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요.

○민형배 위원 방향을 이렇게 좀 바꿔 보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의논을 한 두어 차례 했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해서, 국립현대미술관 광주 분관이 조금 형태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무산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그것은, 광주시 의견은……

○민형배 위원 말씀 돌리지 마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아니, 광주시의 의견은 계속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조율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여지가 있는 거네요,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뭐 여지는 있지요.

○민형배 위원 그러면 제가 오해를 한 겁니까, 총선 전후에 바뀌었다는 것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런 이유로 그런 게 바뀌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그런데 예산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지역사회에서는 다 그렇게 받아들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산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니까요, 지금도 더…… 물론 대개 특히나 기관, 건물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민형배 위원 장관님, 그러면 모양이, 형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꼭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는 혹은 버금가는 혹은 유사한 미술관이나 문화인프라를 까는 데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각에 변화가 없으시네요? 그대로 하실 거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지금은 그 문제보다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이 사실은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어서……

○민형배 위원 제가 그것은 조금 이따가 추가질의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그 안에 지금 많은 시설 내지는 사업이 있거든요.

○민형배 위원 이것은 조금 달라요. 그 특별회계하고 지금 이 예산은 좀 다른 거지요. 하여튼 생각이 바뀐 건 아니다 이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다시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장미란 2차관님 그리고 정진완 회장님 나오셨지요?

지금 패럴림픽 준비 잘 되고 있나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미란 차관님, 잘 되고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 장미란 예, 회의 점검하면서 준비 잘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4년 전 도쿄올림픽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00명당 1명꼴로 온열 관련 질환에 시달렸고 또 더위를 먹은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실신하는 일들도 벌어졌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교육이 다 이루어졌다고 들었어요. 이번에는 폭염 대비책, 온열질환 대책 문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TV에서 프랑스와 국가에 관련된 보도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폭염뿐만이 아니라 정정불안, 지금 프랑스는 테러 위협 등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안전하게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정진완 회장님께서도 패럴림픽 출전 선수들에게 폭염 그리고 안전에 있어서 더욱 교육을 잘 실천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정우 체육국장님 나와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나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장에서 국제스케이트장 건립 관련해서 문체부가 유네스코와 재협의해

서 태릉 빙상장을 존치하려는 계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그때 회의에서 실무적으로 의견을 한번 제시한 적은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게 지금 국장님이 실무적으로 제안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때 태릉 경기장 대체부지 선정 회의에서 제가 한번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장에서 존치를 요청했을 때는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 와서 또 바뀔니까? 신규 건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신규 건립으로 방향이 정해져 있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하고 있는 7개 공모사업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현재 지금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마무리, 착공될 때까지 무조건 착공될 수 있도록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공모는 진작 한 것 같은데 지금 아무런 보고 자체를 못 받고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겁니다.

장관님, 장관님께서 게임 섯다운제 도입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예전에.

○임오경 위원 예, 2011년에. 그런데 이게 2021년에 실패한 제도로 폐지되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2021년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유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게임업계를 위기로 내몰았더라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들어 보니까 장관님은 지금 반대 입장을 밝히셨어요. 세계기구의 게임 질병코드, 즉 게임을 질병으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에 반대 입장을 밝히셨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이게 내년까지 세계보건기구에 저희가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우리 장관님의, 문체부의 입장이 더 힘을 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우리나라는 게임 질병코드 도입 실행에 가장 적극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교육부, 의료계 등에서 도입을 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관님께 지금 부탁드립니다.

앞서 우리 강유정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따른 문제점이 8조 원 이상의 경제손실이 있고 8만 개 이상의 일자리 기회, 취업 기회가 줄어든다는 말씀이 있었지요? 저는 우리의 K-콘텐츠이자 효자산업인 게임업계가 다시금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제대로 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임 질병

코드에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정책이라는 건 늘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그때그때 그 시대에 맞게 그 현장에 맞춰서 새롭게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오경 위원 목소리를 높여 주십시오, 정부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임오경 위원 한상준 영진위원장님 나와 계시지요?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예.

○임오경 위원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정말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안에서……

○임오경 위원 저 시간 좀……

○영화진흥위원장 한상준 내부에서 의견에…… 거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재원의 다각화는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님 나오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예.

○임오경 위원 감면으로 극장 관객 수가 얼마나 늘지 연구용역이라도 한번 해 보셨어요, 문체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감면에 대한 용역은 아직 안 했었고요.

○임오경 위원 그런 것도 하지도 않고 무조건 폐지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발기금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발전을 거듭한 K-무비가 오늘날 세계적인 호응을 이끌 수 있었던 바탕이 되어 왔던 재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당장의 구체적 대안 마련도 없이 영발기금의 유일한 재원부터 끊겠다는 주무부처에 그 예산을 관리하는 영진위나, 어쩌면 이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태평하지 않았습시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영발기금의 재원 마련 다각화 대책 마련하셔서…… 한번 해 보셨나요? 다음 대책을 마련하고 지금 이것을 폐지한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올해 말로 지금 적자로 돌아가게 돼 있고 내년엔 145억의 적자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회계로 전용한다든지 일반회계로 전입한다든지 그런 계획들을 다 짜고 있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협의가…… 그러면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폐지 얘기가 나와야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협의도 제대로 안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다음 대응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폐지설이 나오니까, 이게 폐지한다고 지금 영진위에 도움이 됩니까? 지금 영화인들에게 도움이 돼요?

우리 장관님은 20편 이상의 영화를 만드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의 대응 대책도 없이 무조건 폐지설부터 나와요.

제가 왜 이것을 걱정해야 됩니까? 장관님이 걱정하셔야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폐지됐다고 해도 우리가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담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에이 장관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된 것뿐이지요.

○임오경 위원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 준대요? 그거 믿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그렇게 될 겁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체육인으로서 한 말씀 드리면 체육기금에서 지금, 코로나 시국에서도 계속해서 체육기금으로 지금 도움 주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론이지요.

○임오경 위원 왜 그래야 되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기금이라는 것은 꼭, 그것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 다 나눠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체육……

○임오경 위원 88서울올림픽 이후 체육진흥기금은 체육인을 위해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어려운 쪽 도와주는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과 뒤가 안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체육기금에서도 영화기금, 문화예술기금 다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걱정이 아니라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안 대책을 마련해 놓고 폐지설이 나와야 되는데 정부가 폐지를 선언해 놓고 대책을 마련하니 이게 문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영화기금이 지금 극장의 관객 수가 떨어져서 연 한 25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그 돈도 다 채워질지, 사실은 그대로 유지돼도 굉장히 기금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OTT가 지금 들어서면서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번 제대로 검토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장관님이 그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질문하실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추가질의 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히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추가질을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강유정 위원님 그리고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임오경 간사님.

우리가 재추가질의……

박정하……

○박정하 위원 아니요, 질의가 아니라……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

○박정하 위원 잠깐 위원장님하고 비공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

○위원장 전재수 그럴까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관례적으로 이렇게 재추가질의를 할 때는……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 두 분이 이석을 하셨고 민주당 위원님들 거의 다 자리에 계신데 관례적으로 하자면 민주당에서 두 분을 하면 국민의힘에서 두 분을 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우리 박정하 간사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민주당 위원님들 재추가질의 다 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승수 위원 앞서 굉장히 시간을 넉넉하게 추가로 줬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 위원들은 거의 시간을 지켰는데, 전례대로 해서……

○위원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박정하 간사님 의사진행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애초에 위원장님하고 지난주에 협의하면서 우리 문체위 상임위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준비하셨던 질의는 가급적 시간도 넉넉히 드리고 충분히 하자라는 데 우리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 기왕에 준비해 오신 말씀 죽 주시는데 시간이 초과되는 건에 대해서도 제가 보면서 이해를 했고, 우리 김윤덕 위원님 같은 경우는 순서가 지나면 사실은 질문시간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정부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는 부분이라 충분히 저도 양해하면서 들어 줬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위원님들이 준비해 오신 것 충분히 말씀 주셔도 여야 간에 어느 정도 시간의 밸런스는 좀 맞춰 주시는 게 앞으로 어떨까 싶고요.

오늘은 기왕에 준비해 오셨다니까 우리 첫 업무보고고 하니까……

양 위원님도 추가질문 하세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주시고, 이번에는 추가시간 좀 위원장님께서 제한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것 말씀 마저 하시고 마치면 어떨까, 그렇게 해도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운용의 묘를 좀 잘 잡아 주십사 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우리 박정하 간사님께서 이렇게 너그럽게 양해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위원님 재추가질의 안 하시는 것으로?

○김승수 위원 예.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재추가질의는 우리 강유정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임오경 간사님, 네 분.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강유정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좀 잘됐으면 하는 마음에 여쭙보는 건데 WHO-FIC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HO…… 저한테 물어보시는 것이지요?

○강유정 위원 예, WHO-FIC.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WHO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건강?

○강유정 위원 아니요, FIC요, WHO-FIC.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게 뭐냐면 아까 말하는 질병코드와 관련해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서 역할을 제대로 해야 질병코드 등재가 안 되도록 문체부가 저항할 수 있고 막아 낼 수 있는 건데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모르시면 안 되고요.

게다가 윤석열 후보 시절에 게임은 질병 아니더라고 SNS에도 올린 적 있는데 지금 거꾸로 잘못하면 또 한번 후보 시절 했던 말과 반대로 가는 일을 문체부에서 방관하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한국의 통계법에 의해서 국제, ICD에서 반영이 되면 KCD에 무조건 반영돼야 된다, 이 통계법 내용은 알고 계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썬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반대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아니요, 반대하고 있지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라고 지금…… 제가 지금 개정안도 내놨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는.

그런데 주무부처에서 말로만 자꾸 하겠다 하겠다 하지만 지금 제가 물어보고 있는 어떤 단계에서도 방어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는 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강유정 위원 국무회의 가서도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고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하나만 더 여쭙볼게요.

KETA는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저희 관광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중의 하나입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왜 법무부가……

지금 태국에서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반한 감정이 생기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뭐 그……

○강유정 위원 이렇게 문화 아이টে에 대해서, 아까 누군가 동북공정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이렇게 태국인들을 전부 불법체류자처럼 여기기 시작을 해서 비자를 내지 않는다면,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비자를 내주고 있지만 절대로 불법체류자가 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이것을 허락해서, 문체부에서 자꾸 뒤로 물러날 게 아니라 법무부에 단속 능력을 더 강화하라고 요구하셨어야 됐는데 이번에도 물러나셨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물러났다는 게 무슨 표현이시지요?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 문제는 늘, 저희들이 지금 항상 회의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사실은 이렇게 대립되고 있는……

○강유정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KETA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저항도 못 하셨고, 지금 보면 KETA 도입하고

나서 불법체류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태국은 지금 굉장히 많이 있지요.

○강유정 위원 아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더 늘었습니다, 오히려. 이걸 하고 나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비자를 안 내줬는데 더 늘었다고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고민도 많이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의논을 하고 있는데 비자 문제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강유정 위원 장관님, 제가 부탁 겸 당부드리는 말은 지금 게임도 그렇고 관광…… 올해가 한국 관광의 해라면서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문체부가 지켜 줘야 되는 부분과 싸워야 되는 부분과 쟁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누수되고 있다라는 것, 일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한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하여간 제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민형배 위원님 재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장관님 애 많이 쓰십니다, 처음 나오셨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감사합니다.

○민형배 위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국가사업입니까, 정부사업입니까? 그러니까, 지자체사업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뭐 다 같이 하는 거지요, 현재로서는.

○민형배 위원 아닙니다. 정부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니,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민형배 위원 정부사업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국가 직접사업인 문화전당 건립·운영은 지금까지 86.8%의 예산이 투입이 됐어요. 그런데 국비와 지방비를 5 대 5로 매칭하는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사업, 이게 사실은 중요한데 이것은 30%도 안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것은 집행률이 굉장히 지금 낮아져 있고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민자 유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민형배 위원 국비하고 지방비만 봐도 그렇다니깐요.

그런데 광주시가 낸 지방비는 32.3%인데 이나마 국비는 29.6%밖에 안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국비는 매년 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돼요.

제가 사실은 문체위를 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 문제 때문입니다. 왜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정부사업인데 이렇게 정부가 직접 하는 사업에는 90% 가까이 예산 투입을 하고 지방과 매칭해서 하는 문화 도시환경 조성사업에는, 이게 실제로 중요하거든요. 여기는 30%가 안 되고 이거는, 이거 도대체…… 예산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거기다가 2023년에 아특회계 국비지원사업이 513억 원이었는데 올해 220억으로 줄었습니다. 60%가 줄었는데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왜 윤석열 정권 들어오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글썽요, 그건 제가 예산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뒤의 국장님들 실장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특회계의 세입자료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이 90%나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입구조 바꾸지 않으면 이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원래 이게 2028년까지 마무리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기에는 언제 될지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게 조금 더 연기되지 않았나요? 30……

○민형배 위원 그게 2028년이네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 그래요? 지금 세 차례 연기되는 것 같은데……

○민형배 위원 22대 국회 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시든지 아니면 기간을 늘리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것 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 번째 연장이 돼서……

○민형배 위원 연장을 했…… 그러니까 이게 세 번째 연장된 것도 참 웃기는 얘기지만 정권만 바뀌면 계속 이런 식으로 뒤로 미루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아마 정권이 바뀌어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예전에……

○민형배 위원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현상은 그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2008년도에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할 때도 정말 나서서, 그 때 제대로 안 했으면 지금도 아마 한참 진도가 안 나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장서서 그때 다 했거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형배 위원 제가 그때 담당 비서관이었거든요.

그때까지는 잘 나가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이 사업을 거의 안 하려고 했지요, 이명박 정권 들어서고 나서. 잘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 건립하는 데 얼마나 앞장서서 저희 문화부가 그 역할을 했는데요.

○위원장 전재수 이제 정리해 주십시오.

○민형배 위원 나중에 이거는 다시 따져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전재수 다음으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유인촌 장관님 이하 오늘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유산청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를 특정해서 거론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이것은 지역구의 특정한 민원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원칙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에서 예를 드는 것이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문화유산인 공주 공산성 건너편에 지금 공주의 아주 얼굴인 구 터미널 부지에 주상복합 신축 심의를 지금 하고 계시지요?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박수현 위원 7월 10일 날 제8차 심의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유산으로부터 사업지구 한 500m 거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500m 거리 밖에 일단 위치해 있는 것이어서 규제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아까 청장께서 인사말씀에 하셨던 국민의 삶과 조화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 규제 간소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 범위 재조정 및 강도 완화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이런 말씀, 그리고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모색하겠다는 이런 말씀, 이렇게 아주 의지를 밝히고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드린 이 건은 거리 규정에 해당하지도 않는데. 그러나 제가 설명을 들어 보면 전 지역이 세계문화유산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주의 얼굴인 그곳이 지금 십수 년째 그렇게 폐허로 지금 방치가 돼 있던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심사 기준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게. 그냥 세계문화유산 도시니까 전 지역이 이것 좀 심각하게 해 봐야 된다는 그다음에 심의 결과를 보더라도 이래서 이렇게 때문에 안 된다는 그다음에 보류한다든가 이런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그야말로 고무줄식이고 주먹구구식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또 심사의 내용도, 심사위원도 그때그때 내용이 달라진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삶과 조화되는 국가유산 보호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도 좀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하고 결론을 내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거든요. 그래서 이 심사 기준을 좀 정확하게 정비를 하든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문화유산 도시이기 때문에 좀 보류한다…… 언제까지 보류만 할 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정비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 이에 대한 청장님의 그런 의견 그리고 또 청의 입장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서면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서면으로 제출드리면 될까요, 그러면?

○박수현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국가유산청장 최응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마지막으로 임오경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정용욱 종무실장님 나와 계시지요? 나와 계시나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정용욱 예.

○**임오경 위원** 열린송현 녹지광장 부지에 추진 중인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놓고 지금 불교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정용욱**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은 사회적 공감대 조성을 전제로 해서 여러 후보지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나 종무실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는 바는 없고 철저히 민간 중심으로 구성된 건립……

○**임오경 위원** 본래 목적대로 한다 그러면 시민의 문화 공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불교계의 입장이 맞는 거지요, 원래 본래대로 한다면? 열린송현 녹지광장은 문화 공간으로 원래 처음부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승만 기념관 건립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정용욱** 글쎄, 일단 저도 언론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뭐 결정된 것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임오경 위원** 정부가 자꾸 말을 바꾸고 계획을 자꾸 바꾸니까 현장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이 나는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현장을 찾아가셔서 좀 귀담아들어 주시고 그거를 정부에 또 용산에 좀 전달해 주시고 하셔야지 이 논란이 조용해질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종무실장 정용욱** 관계 당사자 간의 소통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이렇게 보고 있으면 너네 떠들어라 이렇게 내던져 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정부는 무조건 발표하고 현장에서 너희들끼리 싸워라.

이것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다시 현장으로 나가셔서 우리 종교계의 말도 좀, 불교계의 말도 좀 들어 보시고 또 현장에 계시는 전문가들 말 좀 들어 보셔서 저희가 처음 본래의 목적대로 실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아 주셔도 되고요.

관광공사 서영충 사장직무대리님 나오셨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임오경 위원** 코로나 이전에 한국을 가장 많이 찾은 인바운드 나라는 어느 나라였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중국이었습시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중국은 우리나라 관광객 수가 어느 정도인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지금 현재까지도 순위로는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순위로는 그렇습니다.

○**임오경 위원** 몇 프로나 들어오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대략 한 30%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민국 관광산업을 진짜 먹여 살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중국이었습시다. 알고 계시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충**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슈퍼 엔저 장기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여행 수지 적자 최대치를 올리고 있습니다. 맞나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최대치까지는 아니고요. 그렇게 좀 전망은 되고 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98억 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슈퍼 엔저가 지속되면서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께서도 제주도를 가느니 일본으로 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올 1~5월까지 일본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잘 못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일본 아웃바운드 관광객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일본 아웃바운드요?

○**임오경 위원** 예, 일본 관광객이.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일본에서 한국으로 오는 관광객 말씀이신가요?

○**임오경 위원** 우리가 나가는 것, 우리가 나가는 것.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327만……

○**임오경 위원** 373만 명이지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거는요?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117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맞습니다. 인바운드가 지금 117만 명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자를 견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진짜 생각을 달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관광……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임오경 위원** 맞습니다. 이 부분을 강력하게 외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리 서영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코로나 이전 19년하고 대비하면 외래객 회복률은 90%까지는 올라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큰 시장이 중국하고 그다음에 일본인데 중국, 일본이 아직 칠팔십 프로대 회복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과감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최대한 유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장관님 답변 한번……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제가 조금 보충 드리면요 중국 관광장관 회담을 약 두 차례 정도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지금 날짜를 안 잡아 주고 계속 미루고 있어요. 그런데 9월 달에 일본에서 3국 간의 관광장관 회담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문을 안 열고 있고 특히 우리 게 임 같은 것도 판호 발급을 거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의 제기를 할 거고 상호 호혜적으로, 우리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저들은 지금 문을 막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곧 회답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예, 대한민국의 인바운드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는 정책을 좀 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

○김승수 위원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너무 답답한 부분도 있고 해서 한 2분만 주시면 두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질병코드 등록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는 계속 반대 입장이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도 게임을 질병코드 등록을 하는 데 대해서는 반대 입장입니다. 다만 21대 국회 때도 많이 문제가 됐던 확률형 아이템, 그중에서도 컴플리트 가차와 같은 실직적으로 이게 도박과 구별이 안 되는 그런 게임들도 상당히 있고 또 이런 게임들로 인해 가지고 중독되는 청소년들 또 그런 자녀들을 보면서 불안해하는, 걱정하는 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게임산업에 대한 그런 나쁜 부작용,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하면서도 사실상 게임으로 인해 가지고 도박에 준하는 중독이라든지 고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입장을 정리해서 다음 회의 때 이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존경하는 민형배 위원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국비 지원 저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국비 예산이 1170억, 1180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 1500억이 넘었습니다. 세상에 일개 도시에 문체부의 국비 예산이 1000억 넘게 가는 그런…… 1000억은 고사하고 10억, 20억 받기도 힘든 게 문체 예산입니다.

그리고 국비 예산 투입이 저조하다 그러는데 전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총 예산이 5조 2900억이었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조 7000억 원이었는데 국비는 지금까지 벌써 한 74%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방비 7800억 중에서 투입된 게 지금 2500억, 32%밖에 안 되고 더더구나 문제는 민자를 가지고 1조 7000억 유치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투입된 게 2200억, 13%밖에 안 됩니다.

국비는 예정대로 더 추가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는 반면에 당초 약속했던 지방비나 민자는 지금 제대로 투입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민자 유치가 힘들어지니까 3차 수정 계획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정 계획에서 민자 유치로 안 되는 예산은 고스란히 국비로 떠넘겼습니다.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은 안 하면서 천몇백억씩 받아 가는 이런 데 대해서 뭔가 문제가 있는지를 더, 오히려 보면 내부적으로 세심히 따져 가지고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산 때 좀 따지겠습니다마는 문체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민자 유치 잘 안 되는 게 현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주시키고, 어차피 이거는 계획돼 있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조정할 수 있을 만큼 조정도 하고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자료 요청 관련해서.

○위원장 전재수 예, 짧게.

○임오경 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이석하시고 박정하 간사님께서 사회를 보실 때 김효재 이사장님께서 오늘 상임위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신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았습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드린 것 같은데요.

○임오경 위원 언론진흥재단 한국 조사에서 조사 방법론의 오류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 오류가 있는지 최대한 이 명의로 협의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제출해 달라고 했을 때 주신다고 하셨는데 아직……

○위원장 전재수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저희 재단 직원들이 만들어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확인해 주십시오.

○한국언론진흥재단이사장 김효재 추가로 부족하시면 위원님 실로 별도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민형배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 김재원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성실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유인촌 장관, 최웅천 청장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 등 국회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문화예술법안심사(9인)	강유정 박수현 양문석 이기현 조계원	더불어민주당(5)
	◎박정하	국민의힘(3)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신동욱 정연욱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체육관광법안심사(7인)	민형배 박수현 ◎임오경	더불어민주당(3)
	김승수 배현진 진종오	국민의힘(3)
	김재원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심사(8인)	◎민형배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조계원	더불어민주당(5)
	김승수 정연욱 진종오	국민의힘(3)
청원심사(5인)	강유정 김윤덕 임오경	더불어민주당(3)
	배현진 ◎신동욱	국민의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5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동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욱 조계원

○청가 위원(1인)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정환철
입법심의관 김충섭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
제1차관 용호성
제2차관 장미란
차관보 이진석
기획조정실장 황성운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 최보근
종무실장 정용욱
국민소통실장 유병채
장관정책보좌관 김기동
대변인 강수상
감사관 구경렬
정책기획관 이정미
비상안전기획관 우승용
문화정책관 이해돈
예술정책관 신은향
지역문화정책관 강대금
국제문화정책관 김재현
해외홍보정책관 채수희
소통정책관 김도형
소통지원관 이준호
디지털소통관 이정은
콘텐츠정책국장 윤양수
저작권국장 정향미
미디어정책국장 김용섭
체육국장 이정우
체육협력관 송윤석
관광정책국장 박종택
관광산업정책관 김근호
한국정책방송원
원장 이은우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이해영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은실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조현래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 한상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장 김병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김효재
국제방송교류재단
사장 김태정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준희
한국문학번역원
원장직무대행 이정근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 서영충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대한체육회
사무총장 윤성욱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 이석형
국가유산청
청장 최응천
차장 이경훈
기획조정관 황권순
유산정책국장 임영아
문화유산국장 이종희
자연유산국장직무대리 여성희
무형유산국장 윤순호

【보고사항】

○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배현진	.	국민의힘	2024. 6. 25.
.	배현진		
강승규	박정하		2024. 6. 26.
김예지	신동욱		
이달희	정연욱		

○의안 회부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4. 6. 2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1. 조정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1)

이상 2건 6월 24일 회부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4.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82)

6월 25일 회부됨

한류기본법안

(2024. 6.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5)

한복문화산업 진흥법안

(2024. 6.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4)

이상 3건 6월 26일 회부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6.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59)

이상 2건 6월 27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44)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68)

이상 3건 6월 28일 회부됨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5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72)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73)

이상 6건 7월 1일 회부됨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56)

7월 2일 회부됨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2.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12)

7월 3일 회부됨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2024. 6.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21)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3.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0)

이상 3건 7월 4일 회부됨

○관련 의안 회부**동남권순환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0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5.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6)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5. 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4)

이상 3건 6월 2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0.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0)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2024. 6.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91)

이상 2건 6월 2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인천 글로벌경제거점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2024. 6. 27. 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2)

6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7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2024. 7. 3.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2)

7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통지**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14. 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4)

7월 2일 철회 통지 됨

○계획서 송부

2024년 한국수어발전시행계획

(2024. 6. 28. 정부 제출)

7월 5일 송부 됨